

태백문화

2014 통권 제26집

<http://www.taebaekculture.com>



金炳哲作



태백문화원

태백문화

2014 통권 제26집

<http://www.taebaekculture.com>



COVER STORY

작품설명

가을 결실을 맺는 감과 노박덩굴 열매를
수목화 하여 촬영 하였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잠시 뒤 돌아
보는 자리에서

탐스럽게 여물어 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환희와 기쁨

그리고 내년의 또 다른 기쁨과 알찬 열매를
기대하며..



작가_김 병 철

태백예총회장 직무대행 역임
태백사협지부장 역임 빛그림모임 지도위원
태백 숲 이야기 회장
현.태백문화원 이사

CONTENTS

005 ·권두시 응화 _ 양진모

006 ·발간사 _ 김해운 원장

007 ·축사 _ 염동열 국회의원/김연식 태백시장/유태호 태백시의회의장/김송일 태백교육장

태백문화 그 현장

전통제례

012 ·태백산천제

015 ·낙동강발원제

태백문화학교

017 ·노래교실/요가교실/하모니카교실/건강기체조교실/전통가락교실/
색소폰교실/토들러동작놀이교실/유아영어피아노교실/

문화사랑방

025 ·주말양말공예교실/가죽공예교실(2014.어르신문화프로그램)

나눔의장

027 ·재능기부자원봉사

028 ·2014강원문화대축전

문화유적지탐방

031 ·남이섬탐방

032 ·향토음식경연대회



문화논단

- 035 ·강과문화 / 지역문화관광자원답사 / 호식장 _ 김강산

문화칼럼

- 076 ·통일을 준비하는 태백시를 주목하자 _ 이상출
082 ·통일세대/백두산여행 _ 벤토레이 신부
088 ·네 번째 강을 흐르게 하라 _ 최요한

문화기고

- 094 ·훌륭한 경찰관 아버지 _ 은영선
108 ·특별기고-태백산천제참여기 _ 육군8087부대2대대 이명진 원사

초대시

- 112 ·세월/가을 _ 김창진
116 ·구월편지/동강할미꽃 _ 정기영

120 ·태백문화원연혁
122 ·태백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학교강사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융화融和

양진모

밥상을 앞에 놓고 마주하는 눈길
풍요로운 소찬(素饌)으로
행복의 그네를 타고

그릇 됨은 나의 탓
보리심은 행(行)으로
허공에 새긴다

꽃의 성스러움이 씨앗의 비밀로
근기의 습이 얼굴로 반영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대지의 잡초처럼
서로 엉켜 즐거워라



시인 양진모

2006 「좋은문학」시 등단
(전)한마음문학회 회장
(주)의정산업 대표
대한전문건설 태백시협의회장
현. 태백문화원 이사



김 해 운
태백문화원장

세월이 유수 같다고 했듯이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알차고 값지게 하려던 많은 일들이 지내 오고 보니 그저 또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나아진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년 초부터 시작된 문화학교의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은 성원 속에 지역의 우수사례 문화원을 탐방견학하고 다문화가족 센터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기관을 돌며 자원봉사까지 하는 등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넘어서 다시 나누면서 함께하는 문화학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문화원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의 고마운 수고가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의 세상살이가 참 각박해져 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마음과 정서를 가다듬어야 그나마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 년의 농사를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제 한 해를 추수하는 우리의 태백문화원을 뒤돌아보며 내년을 기약해야 될 시점입니다.

부족함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하여 진력을 다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볼 때 단번에 이루기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한발 한발 나아간다면 종래에는 커다란 성과를 볼 것이라 다짐하며 한 해 동안 애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태백문화원을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의 태백문화원의 성과물을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명 동 열
국회의원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 왔습니다. 추위를 녹일 정도로 풍성한 내용을 가득 담은 「태백문화」 26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향토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태백문화」는 우리 태백의 향토문화 활동을 정리·기록하며, 지역문화예술의 자취를 남기는 소중한 자료이자 문화적 자산입니다. 「태백문화」의 발간 역사도 어언 26년이나 되어 자연적 소재가 풍부한 우리시의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문학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삶을 나누는 문화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백문화원은 사라져가는 옛 생활의 풍습 등을 기록·보존하는데 있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전통문화와 정신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시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휴식과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새롭고 희망찬 태백의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도록 해안과 미래의 비전도 함께 담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태백문화」 26집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문학인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 연 식
태백시장장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시 문화의 중심이자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태백문화원의 <태백문화 제26호> 문화지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금번 ‘태백문화’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게된 요즘 문화와 문화융성이 대세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최우선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문화란 시민들의 삶의 방식이라 생각하고 문화의 목표는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문화융성은 시민이 문화와 예술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문화융성의 최일선에서 ‘태백문화 제26호’는 지난 1년간 태백문화원에서 애쓰 천제, 낙동강발원제등 문화행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학교 그리고 전통음식 경연 및 문화유적 탐방등 문화원의 애쓰 흔적과 노력을 기록하여 지역주민 및 후세에 전하는 소중한 문화기록자료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6호로 청년기를 맞는 ‘태백문화’ 발간에 작가 또는 연구자로서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태백문화지 발간을 비롯해서 우리지역 문화의 보존과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많이 이끌어 주시고 노력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태백문화 제26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 태 호
태백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장 유태호입니다.

금년 한해 태백의 풍성한 문화 소식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태백문화 제26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문화진흥과 시민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오고 계시는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바라는 태백의 미래상을 위해 지금의 발자취는 소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멋진 인생을 선사해 주고, 시민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태백문화지가 26번째 발간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독창적인 시민문화와 지역민의 생활상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삶의 여유와 웃음을 선사 할 수 있도록 『태백문화』가 향토 문화지로서 오랜 시간 동안 편찬되길 기대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하고도 유익한 프로 프로그램들이 태백문화원에서 더욱 왕성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태백문화 제26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송 일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갑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태백지역 문화의 총화라 할 수 있는 「태백문화 제26집」이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태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운 원장님을 비롯한 태백문화원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文化)’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태백지역은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해발 700m 고지의 ‘하늘 아래 첫 도시’이며, 그 오랜 역사성과 지리, 기후, 환경 특성상 고원 휴양지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만큼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제를 지내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 남해로 흘러가는 낙동강,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의 ‘발원지’ 등이 겨레의 젖줄을 품어내고, 민족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백의 자연이 품어내고 있는 아름다움과 다른 의미있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태백 문화로 녹아들게 하고, 이를 절제된 언어와 호소력 짙은 문장으로 다듬어 내는 것이 앞으로의 「태백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태백문화지 발간을 계기로 태백 문화의 역동적 담론을 이끌어내고 태백 교육의 시각에서 문화적 정서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태백문화 제26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백문화 그 현장!

전통제례

태백산천제
낙동강발원제

태백문화학교

노래교실/요가교실/하모니카교실/건강기체조교실/전통가락교실/
색소폰교실/토들러동작놀이교실/유아영어피아노교실/

문화사랑방

주말양말공예교실/가죽공예교실(2014.어르신문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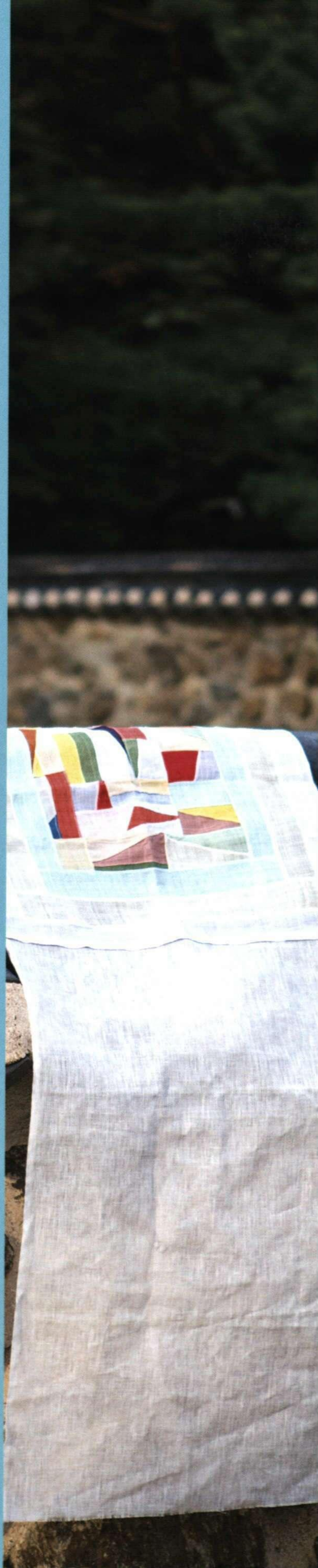
나눔의장

재능기부자원봉사
2014강원문화대축전

문화유적지탐방

남이섬탐방

향토음식경연대회





태백산천제 봉행

단군기원 4347년
太白山天祭

2014년 10월 3일
개천절 오전11시 천제단



☞ 헌작례를 행하는 모습



☞ 영신굿



☞ 일월성신기와 28수기



☞ 운집한 참례인들



☞ 삼헌관과 번시관



⊗ 도열한 제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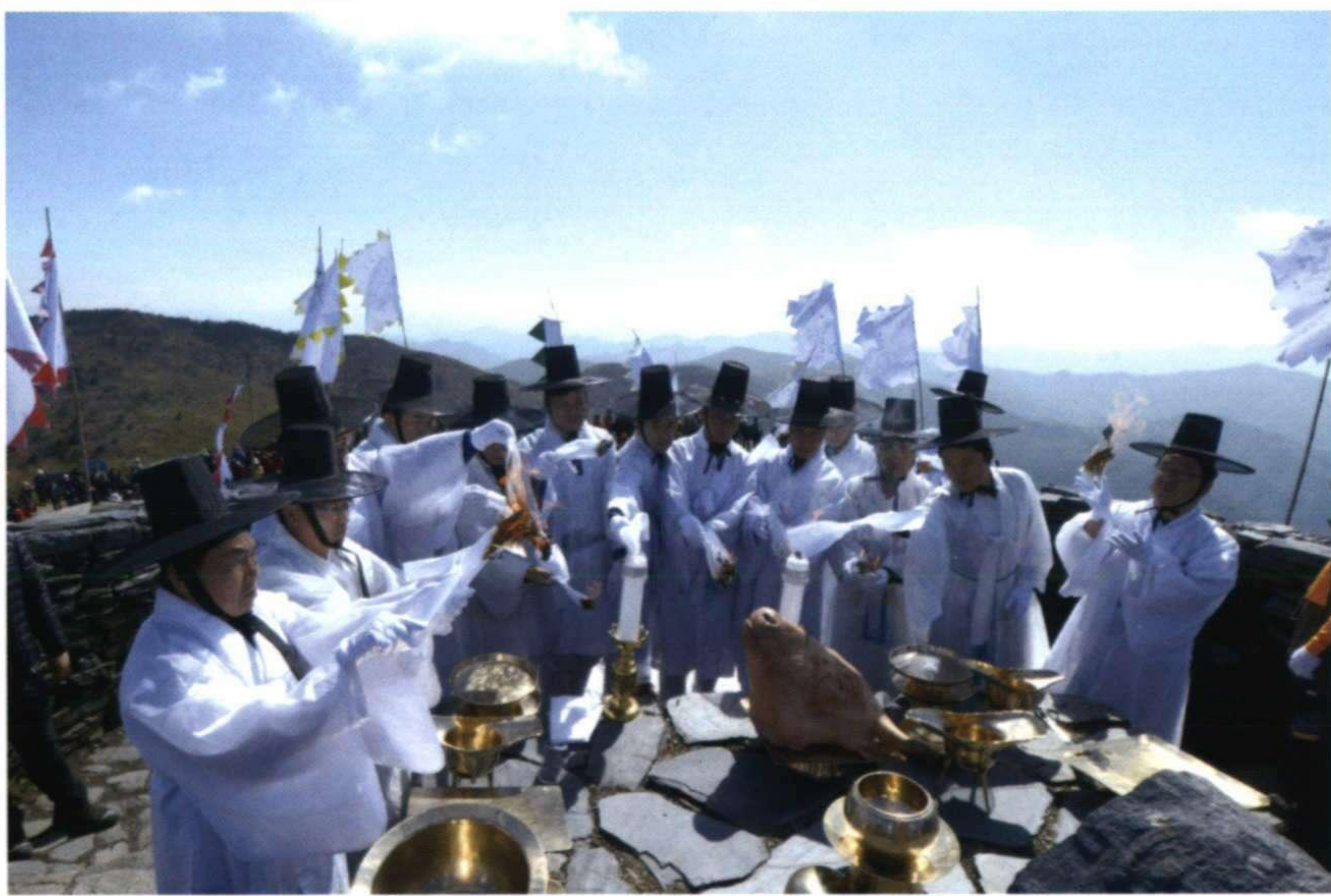


태백산 천제봉행



⊗ 김해운 천제위원장의 인사

⊗ 소지례를 행하는 모습



제12회

낙동강발원제

2014년 6월 2일 오전11시 황지(黃池)



⊗ 봉행과 봉작들의 모습



⊗ 대동용신굿마당



⊗ 참배객들





☞ 독축을 행하는 모습



☞ 관세를 행하는 초헌관



☞ 삼헌관이 도열한 모습

낙동강
박물관제

태백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Taebaek Culture School
하모니카
교 실



태백문화학교



Taebaek Culture School

건강기체조
교 실







태백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Taebaek Culture School

유아영어
피아노교실



문화사랑방





문화사랑방

한글 자판이 겹쳐져 있는 텍스트 영역.



나눔의장

✿재능기부 자원봉사





나눔의장-공연

❀ 2014 어르신문화축전



홍천문화예술회관(2014년 9월19일)



홍천문화예술회관(2014년 9월19일)



나눔의장-공연

✽ 2014강원문화대축전 구전가락공연



⊗ 춘천문화예술회관(2014년11월7일)

⊗ 태백문화원, 구전가락공연단(2014년 11월7일 금)



⊗ 춘천문화예술회관(2014년11월7일)

나눔의장

❁ 2014강원문화대축전-
태백문화원유공단체 도지사표창



❁ 육군제8087부대2대대 대표 이명진 원사 수상
(춘천문화예술회관-2014.11.7.금)

문화유적지탐방

❁ 남이장군묘탐방





향토음식경연대회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문화 논단

강과 문화
태백지역 문화 관광 자원
호식장 (虎食葬)

김강산

강과 문화

- 삼수 유역의 역사와 문화

1. 서론

2. 본론

1) 삼수 유역의 역사

- (1) 낙동강 유역의 역사
 - (2) 한강 유역의 역사
 - (3) 오십천 유역의 역사
 - (4) 삼수의 유로 및 유역 표기
-

2) 삼수 지명의 탄생

- (1) 삼수등의 발견
 - (2) 삼수령의 명명
 - (3) 삼수정 건립
 - (4) 삼수령 기념탑 건립
 - (5) 삼수동 탄생
 - (6) 삼수등에 삼파수봉 표지목을 세우다.
 - (7) 백두대간 낙동정맥 분기점이라는 곳에 표지석을 세우다.
 - (8) 새로운 작명,삼수포인트의 문제점
-

3) 삼수 유역의 문화

- (1) 선비문화의 원류 낙동강
- (2) 세계 속의 한강의 기적
- (3) 동해안 시대의 오십천
- (4) 삼태극(三太極)의 땅
- (5) 생명의 탄생 물의 근원

3. 결론

※참고도서

강과 문화

- 삼수 유역의 역사와 문화

김 강 산(전 태백문화원장)

1. 서 론

춘천 물 포럼에서 필자에게 의뢰한 주제가 ‘강과 문화’란 거대한 주제이고 부제로 ‘삼수 유역의 역사와 문화’이다.

너무 포괄적인 주제라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삼수(三水)는 낙동강, 한강, 오십천이기에 삼수의 역사를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언급해야하는 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역사는 간략하게 짚어 넘어가고 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은 세밀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2. 본 론

1) 삼수 유역의 역사

(1) 낙동강 유역의 역사

낙동강(洛東江)은 우리나라(남한)에서 가장 길이가 긴 강이다. 예로부터 낙동강을 끼고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쇠하였는데, 삼한(三韓)시대에는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이 낙동강 가에서 일어났

으며 낙동강을 경계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각축을 벌이기도 하였고 그밖에 초기 부족국가 시대엔 크고 작은 소국(小國)들이 많았다.

태백산(太白山) 남쪽의 춘양천(春陽川) 가에는 구령국(駒令國)과 소라국(召羅國)이 있었고 안동(安東) 땅에 창령국(昌寧國)이 있었다. 신라(新羅)가 형산강 주위에서 일어났지만 주 통치지역은 낙동강 주변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낙동강은 상주(尙州:洛陽) 동쪽에 있다고 낙동강이라고 한다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 나와 있으나 성리학(性理學)이 발달한 영남 사람들에게 낙동(洛東)의 의미는 중국(中國)에 낙서(洛書)가 나온 낙수(洛水)가 있다면 조선(朝鮮)엔 그에 못지않은 낙동(洛東)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예전엔 낙동강 700리란 말이 있었는데, 이는 낙동강 하구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대략 700백리란 말이다. 그때는 낙동강이 내륙지방의 중요한 교통의 동맥으로 그 역할이 대단하였다. 강안(江岸)에는 하단, 구포, 삼랑진, 수산, 남지, 현풍, 왜관, 낙동, 풍산, 안동 등의 선착장이 발달하였고 가항거리(可航距離)는 약 343km이다.

하구(河口)엔 삼각주(三角洲)가 발달하여 을숙도를 비롯한 여러 개의 섬이 있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한국통일 때는 낙동강의 다부동 전투가 유명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서기 1991년에 대구의 두산전자에서 페놀 유출 때문에 ‘페놀오염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여 낙동강 최대 오염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기 1969년에 남강댐이 건설되고 서기 1976년에 안동댐이 건설 되었으며 현재 약 1300만 명이 낙동강의 물을 먹으며 살고 있다.

(2) 한강 유역의 역사

한강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큰 강이다.

구석기시대부터 강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단군조선 후기에 대방군이 한강변에 있어 마한과 대립하였고 초기의 백제가 한강변에 정착하였

다. 한강은 북진하려는 백제의 세력과 남진하려는 고구려의 세력이 부딪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하면서 수로교통의 중심이 되었으며 서해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뱃길이 유명했다. 또한 내륙에서 뱃길로 한양으로 가기도 했고 강원도 산간에서 뗏꾼들이 물길로 나무를 운반하기도 했다.

한서(漢書) 지리지에는 한강을 열수(列水)라 했고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 등에 처음으로 한강(漢江) 또는 한수(漢水)라는 기록이 보이고 한산하(漢山河) 그리고 북독(北瀆)이라 하기도 하였다.

광개토대왕(廣開土好太王) 비(碑)에는 아리수(阿利水)라 했고 삼국사기 백제 개로왕(蓋鹵王) 조에는 옥리하(郁里河)라 하였고 고려 때는 사평도(沙平渡)라 하기도 하였다.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북쪽 기슭에 있는 검룡소(檢龍沼)에서 발원하여 북류(北流)하다가 정선군의 임계천(臨溪川)을 합하고 여량리의 아우라지에서 송천(松川)을 합하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선군 나전리에서 오대천(五臺川)을 합류하며 영월군에서 평창강(平昌江)을 합치고 충주호(忠州湖)로 들어간다.

다시 유로(流路)를 북서(北西)로 바꾸어 달천(達川)과 섬강(蟾江)을 합친 다음 경기도 양수리에 서 북한강과 만나 팔당호(八堂湖)에 들어간다.

팔당호에서는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울시를 관통하여 김포반도 끝에서 임진강과 만나 서해로 들어간다.

일제강점기 때 북한강 수계에 청평댐(서기1943년) 화천댐(서기1944년) 파로호(서기1944년) 등을 건설 했고 우리 손으로 춘천댐(서기1965년) 소양댐(서기1973년) 팔당댐(서기1973년)을 건설했고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서기1985년)을 건설하였다.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검룡소(檢龍沼)는 서기1987년에 국립지리원으로부터 한강의 최장발원지로 공인 받았다고 하며 서기2010년 검룡소는 국가지정 명승지 제73호로 지정이 되었다.

(3) 오십천 유역의 역사

백병산 북쪽 계곡에서 발원한 오십천은 동해로 흘러가는 수량이 풍부하고 곡류(曲流)가 심한 강이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큰 항구가 형성되어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로(水路)가 발달하여 지리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갖춘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를 활용한 실직국(悉直國)이란 나라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오십천 하류에 존재했고 그 영역은 북쪽으로는 현재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북단 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을 다스렸는데 나중에 신라 파사왕 때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다.

실직국의 첫 왕은 진나왕이었고 마지막 왕은 안일왕(安逸王)으로 알려져 있고 울진군의 왕피천(王避川)은 실직국의 마지막 왕인 안일왕이 피신한 곳이고 왕피천 상류의 안일왕산성(安逸王山城)은 안일왕의 마지막 항전지라고 한다.

오십천의 상류지역은 석탄층이 형성되어 많은 탄광(炭鑛)들이 있고 중류지역엔 석회암이 발달하여 대이리동굴지대(천연기념물 제178호)가 지정되어 환선굴, 관음굴, 대금굴 등이 유명하다.

하류에도 석회암지대가 발달하여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인 죽서루가 오십천 가 석회암 절벽 위에 있고 척주동해비, 대한평수토찬비 등이 정라향 육향산에 있다.

오십천 중,하류에 석회암이 잘 발달되어 시멘트 공장들이 유명하다.

서기 1969년부터 오십천에 연어 치어를 방류하였고 지금껏 연어를 포획하고 있으나 상류의 탄광들에서 발생한 폐수 때문에 원활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삼수의 유로 및 유역 표기

삼수(三水)의 유로(流路)나 유역(流域)이나 발원지에 대한 표기가 서로 달라서 혼동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정확해야 할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유로(流路)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로 곧 길이는 지도상의 거리와 달리 측정하는 사람이나 기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작은 굴곡과 수시로 변하는 유로천이(流路遷移) 등이 생기므로 1% 내외의 편차는 인정한다고 하였다.

인터넷을 비롯 각 종 통계자료에서 삼수(三水)의 길이가 다르게 나오고 유역면적이나 발원지에 대한 자료도 제각각이다.

아래의 도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자료인 조선총독부 자료와 국토해양부 자료, 위키백과, 두산백과, 야후백과, 강을 연구한 이형석씨 자료를 비교하여 놓았다.

각기 다른 자료가 빠른 시일 안에 통일되어 어느 자료를 검색하여도 같은 수치가 나오길 기대한다.

삼수의 유로 및 유역 표

❶ 낙동강 현황

	길이	유역면적	발원지
조선총독부	525.15 km		함백산
국토해양부	510.36 km	23,384.21 km ²	
위키백과	525 km	23,384 km ²	함백산
두산백과	506.17 km	23,384.21 km ²	함백산
야후백과	513.5 km	23,860 km ²	천의봉
이형석	513.5 km	23,860 km ²	천의봉

❷ 한강 현황

	길 이	유역면적	발 원 지
조선총독부	514.4 km		대덕산
국토해양부	494.44 km	35,770.41 km ² 25,953.60 km ²	
위키백과	497.25 km	26,018 km ²	금대봉(북쪽계곡)
두산백과	481.7 km	34,473 km ² (북한지역포함)	삼척시 대덕산
야후백과	497.25 km	26,018 km ²	금대봉(북쪽계곡)
이형석	497.5 km	26,018 km ²	금대산

❸ 오십천 현황

	길 이	유역면적	발 원 지
조선총독부	52 km		백병산
국토해양부	56.80 km	394.72 km ²	
위키백과	52 km	294 km ²	백병산
두산백과	46.06 km	350.16 km ²	백병산
야후백과	59.5 km	294 km ²	백병산(북쪽계곡)
이형석	59.5 km	294 km ²	백병산

2) 삼수 지명의 탄생

우리나라에서 삼수(三水)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많다. 다만 그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느냐 하는데에는 의미가 다르다.

삼면이 바다이고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동해와 서해로 흐르는 물줄기를 가진 곳은 대개 강원도이고 동해와 남해로 흐르는 물줄기를 가진 곳은 대개가 경상도이고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물줄기를 가진 곳은 전라도가 대부분이다. 그 밖의 곳은 그저 한 바다로 흐르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 그곳들도 세 줄기 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세 바다, 곧 동해, 서해,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 서해, 남해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딱 한군데 태백의 삼수등(三水嶺) 밖에 없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명심이나 아집 때문인지는 모르나 서로 간에 소통이 없어 처음 발견 때부터 지금까지 각자 행동으로 각자의 주장을 일삼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1) 삼수등(三水嶺)의 발견

지금 논쟁의 대상이자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삼수(三水)라는 말은 삼수(三水) 곧 세 줄기 물을 뜻하니 낙동강, 한강, 오십천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 삼수(三水)라는 말은 이 부근의 땅에서 세 줄기 물이 발원하여 각기 낙동강, 한강, 오십천으로 갈라져 흐른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수령이니 삼수정이니 삼수동이니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고 급기야 삼수(三水)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모든 삼수(三水)와 연관된 이름들은 삼수등(三水嶺)이라는 지명(地名)이 생겨나고 나서 삼수등(三水嶺)에서 그 이름을 따 온 것이다.

삼수등(三水嶺)은 낙동강, 한강, 오십천의 물이 한 지점에서 갈라져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시발점이 되는 상징적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물줄기들이 동해, 서해, 남해로 흘러간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곳은 천의봉(매봉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로 백두대간의 마루금에 해당하는 산등(山嶺)인데, 해발 1,121m로 동경125:51:14.32E 북위37:12:24.89N 지점으로 서기1986년 5월 경에 필자가 발견하였고 그 상징적 장소를 삼수등(三水嶺)이라고 명명하였다.

당시에는 발원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분수령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이해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삼수등(三水嶺)이라는 이름이 별 관심을 끌지 못했고 그저 필자가 발견한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儉龍沼)에만 관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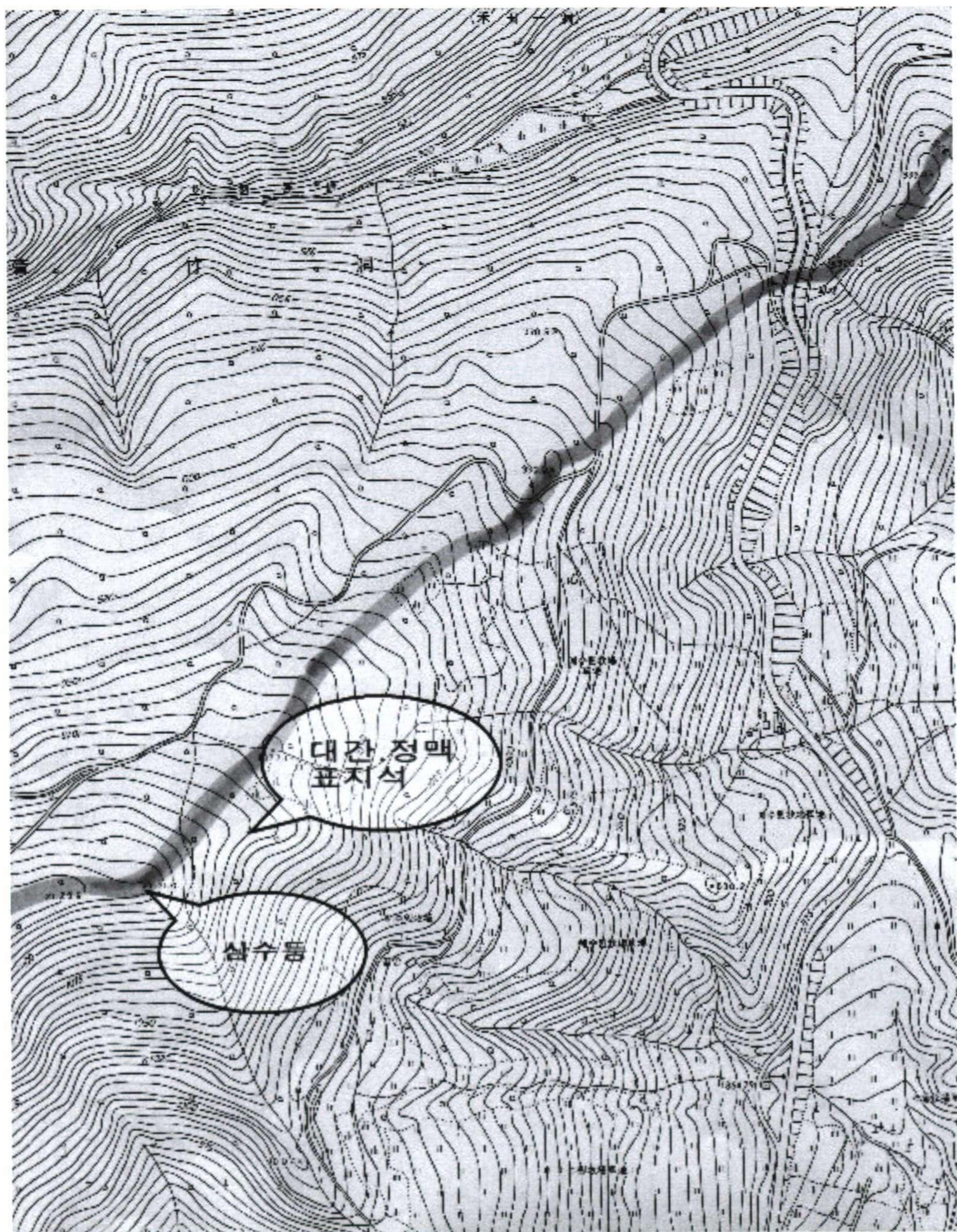


【그림】 삼수등 위치



【그림】 삼수등으로 올라가는 길

삼수등(三水嶺) 위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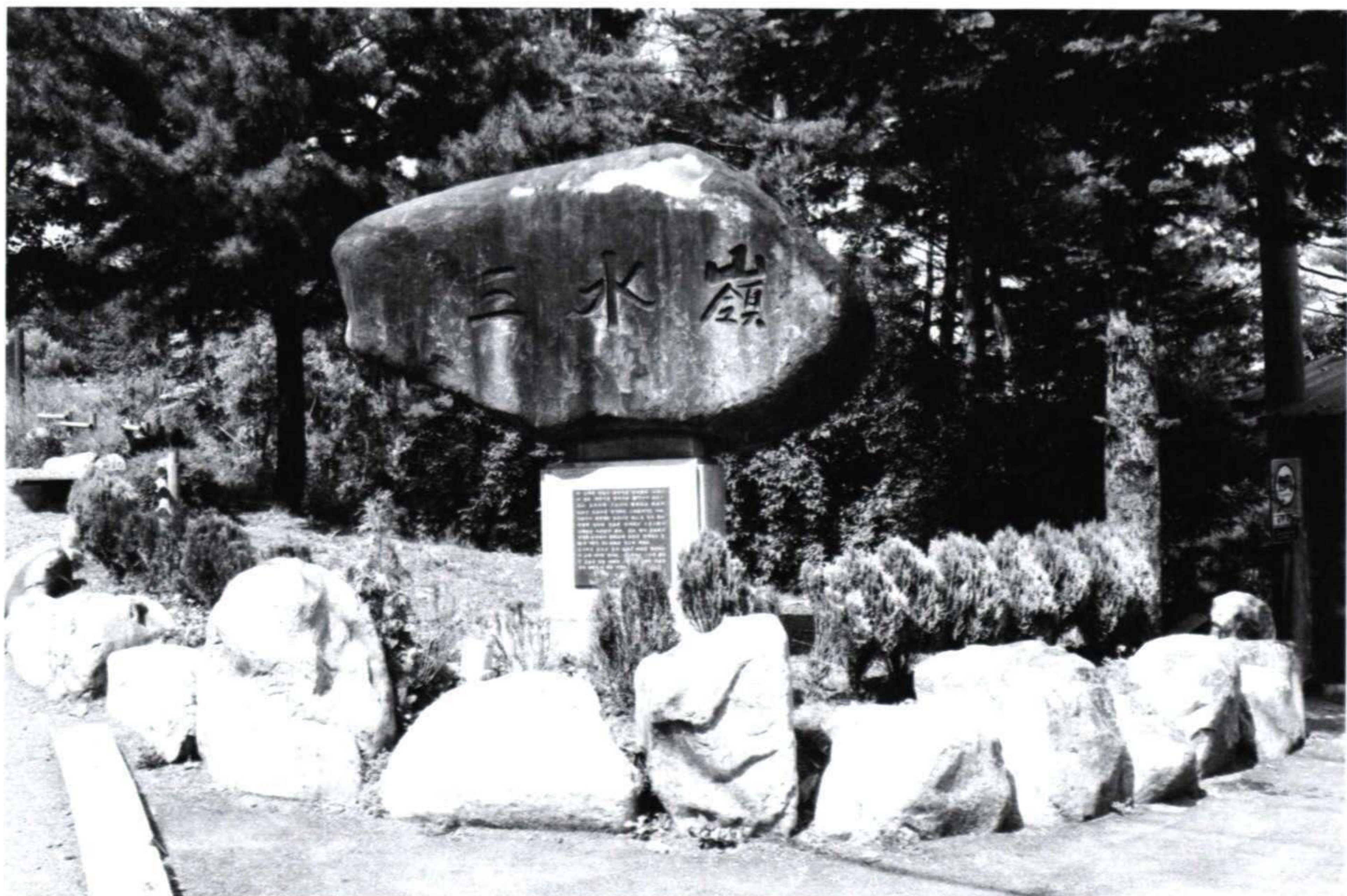
- 백두대간
- 낙동정맥

(2) 삼수령(三水嶺)의 명명

삼수등(三水嶺)을 발견하고 명명하였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서기 1988년 6월 11일 부임한 태백시장 나기정(羅基正)씨가 필자의 설명을 듣고 수궁을 하였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당시에는 천의봉(天儀峯:매봉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비포장이었고 길이 험해 농사짓는 농민들이 아니면 잘 이용하지 않는 길이 었다.

나기정 시장과 함께 삼수등에 갔지만, 지금처럼 등산이 활성화되지 못한 당시엔 접근성이 나쁘고 관광성이 떨어진다고 느꼈는지 아무런 말씀도 안이하고 지금의 삼수령(三水嶺)인 피재로 내려와서는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이곳이 삼수등 아래에 있으니 삼수령이라 하고 표지석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필자는 이곳은 이수령(二水嶺) 밖엔 안 되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기정 시장이 나를 설득하여 말하길, 삼수등 아래에 있어 삼수령이라 하고 학술적으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청이나 문화원에 찾아 올 것이니 그때 자세히 설명하면 되고 현재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니 홍보 차원에서 표지석을 세우자고 하길래 그 말에 일리가 있어 동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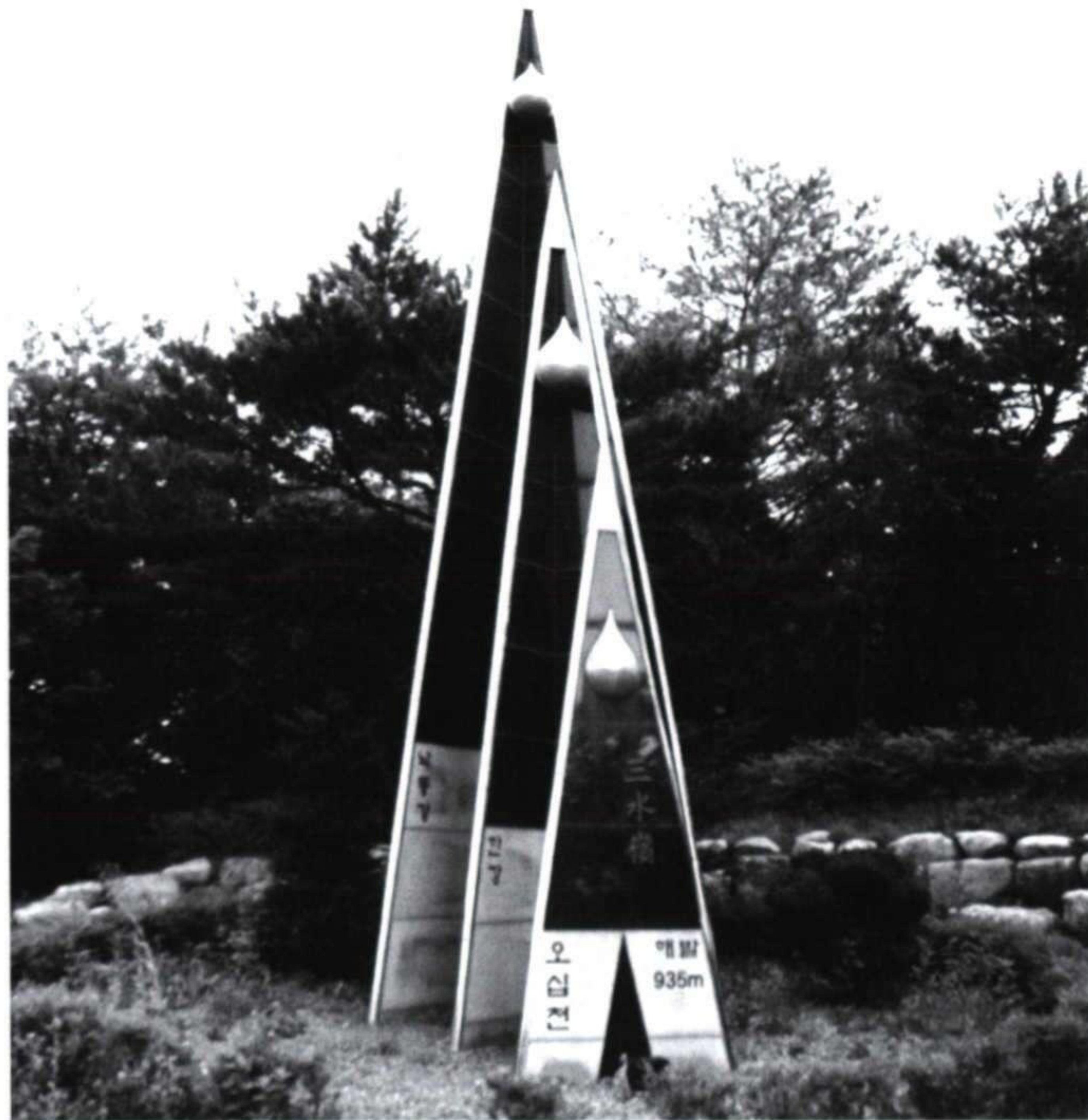
몇 달 뒤 서기1988년 10월경에 태백청년회의소의 후원으로 표지석을 세웠고 서기1992년 9월 25일에 북쪽으로 약 50m정도 옮겨 현재의 위치에 세웠으며 태백시에서 표지석 아래쪽에 설명문을 추가로 박아 넣었다.



(3)삼수령 기념탑(三水嶺記念塔) 건립

피재를 삼수령이라 명명하고 나자 삼수령의 의미가 새삼 주목 받게 되고 뜻있는 사람들의 방문과 많은 관광객들이 삼수령으로 왔다. 이때 태백시에서는 삼수령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설명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태백시에서는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념탑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황태성 과장의 작품이 채택되어 현재의 기념탑 자리에 건립이 되었다.

처음 건립은 서기1996년 5월 경 이었으나 그 뒤 서기1999년 처음 탑은 헐어내고 현재의 탑으로 교체하여 세웠다.



【그림】 삼수령 기념탑

(4) 삼수정(三水亭) 건립

삼수령 정상 북쪽에 삼수정이 있다. 삼척시 도계읍 방향의 백두대간 마루금에 세워져 있는데 전망이 좋다.

삼수정은 목조(木造) 육각정으로 기와지붕에 겹쳐마로 모로단청이 되어 있으며 일반 정자와는 다른 높은 콘크리트 기둥 위에 세운 다락집 형태의 정자이다.

서기 1998년 11월 23일 건립된 삼수정은 시비 8천4백9십7만원을 들였으며 현판 글씨는 마니산인 심은 전정우가 썼다.

삼수령(三水嶺)에 세웠다고 삼수정(三水亭)이라 했고 삼수령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건립하였다.



【그림】 삼수정

(5) 삼수동(三水洞) 탄생

한 때 인구 10만명이 넘던 태백시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행정구역을 여러번 변경하였고 급기야 서기1998년 9월10일 태백시 조례 제1020호에 의거 기존의 16개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8개 동으로 축소하게 되었다.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몇 개의 행정동 명칭을 짓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10개의 행,법정동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행정동 명칭을 정해야 하는 삼수동의 경우는 주민들의 동

의가 필요했다. 현재의 삼수동(三水洞)은 삼수령(三水嶺)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마을들이므로 삼수동(三水洞)으로 동명(洞名)을 정하자는 데는 별 이의가 없이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여 삼수동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동해, 서해, 남해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가진 유일한 동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6) 삼수등에 삼파수봉(三派水峯) 표지목(標識木)을 세운다.

필자와 발원지 논쟁을 벌이던 이형석(李炯石)씨는 뒤늦게 서기 1993년 12월 25일 이곳 삼수등(三水嶺)에 올라 삼파수봉(三派水峯)이라 명명하고 표지목(標識木)을 세운다.

이때는 이미 필자가 삼수등(三水嶺)이라고 명명한지 7년이 지났고, 삼수령이란 표지석(標識石)을 세운지 5년이 지난 시점이다. 지역의 공무원이나 지역 문화원 관계자만 만나서 이야기만 해도 이러한 일은 조정이 될 텐데, 이미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명명한 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삼파수봉이라고 재 명명하고 표지목을 세운바 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이씨 혼자만의 이름이 되고 말았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 조에 보면

“속리산은 보은현 동쪽 44리에 있는데 산봉우리가 아홉이나 솟아있어 또한 구봉산이라 한다. 신라 때 속리악이라 하고 중사의 제를 지냈다. 산꼭대기에 문장대가 있는데 돌이 첩첩이 쌓여 자연적으로 커다란 거북이처럼 생겨 허공중에 솟아 그 높이를 알 수 없고 위가 넓어 삼 천 명은 앉을 수 있다. 문장대 위에는 웅덩이가 있는데 큰 가마솥 같으며 그 속에 물이 가득한데 가물어도 불어나거나 줄어 듦이 없다. 그 물이 반공중에서 세 갈레로 갈라지니 한 갈레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이 되고 한 갈레는 남쪽으로 흘러 금강이 되고 한 갈레는 서쪽으로 흘러 북쪽의 달천이 되니 금천으로 들어 간다.”(在縣東四十四里九峯突起亦名九峯山新羅時稱俗離岳躋中祀山頂有文藏臺疊石天成巖巖聳空其高不知其幾丈其廣可坐三千人臺上有坎如鑊其中有水混混旱縮爾不肥分爲三派流注半空一派東流爲洛東江一派南流爲錦江一派西流而北爲達川入于金遷)

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속리산 문장대에서 갈라지는 물이 삼파류주(三派流注)한다고 했으니, 아마도 여기에

서 따온 이름이 삼파수봉(三派水峯)이 아닐까 한다.

이씨가 저술한 책자인 <한국의 강>에 보면,

“태백시 황지동에서 적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피재에 ‘삼수령(三水嶺)’이라고 새겨진 커다란 돌비가 세워져 있다. 돌비의 앞면에 기록된 안내문을 보면 이곳이 한강.낙동강.삼척오십천으로 물이 나누어지는 고개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가 왔을 때 이미 삼수령 표지석이 있음을 그 스스로 밝힌 것인데, 이수령(二水嶺) 밖엔 아니 되는 고개 마루에 삼수령(三水嶺)이란 표지석을 세운 이유를 지역사회에 알아보는 여유만 가졌더라도 스스로의 수고를 덜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에는 각기 지칭하는 관례가 있는데 봉(峯)과 등(嶺)은 다르다.

(7) 백두대간 낙동정맥 분기점이라는 곳에 표지석을 세우다.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하는 용어가 일본사람이 설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인 산맥 개념인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의 산맥 개념이 민간에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산악인들은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일이 많아졌고 아울러 낙동정맥 종주도 활발히 이루어 졌다.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라지는 지점 부근에 표지석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에 태백시가 자금을 대고 태백시에 있는 주목산악회라는 곳에서 백두대간 낙동정맥 분기점이라고 설정한 곳에 서기 2007년 9월에 표지석을 세웠다.

이 표지석의 좌표는 해발 1,100m 동경125:51:16.16E 북위37:12:26.52N으로 삼수등으로 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온 비탈면에 세워져 있다. 정확히 하려면 이 표지점에서 위쪽으로 약 70m 정도 올라간 해발 1,121m 동경125:51:14.32E 북위37:12:24.89N의 산등 곧 삼수등(三水嶺)에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림】 대간.정맥 분기점 표지석(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그림】 삼수등은 이 곳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위쪽 약70m 지점에 있다.

(8) 새로운 작명 삼수포인트의 문제점

이번 물 포럼을 주최하는 춘천물포럼에서는 삼수포인트라는 새로운 이름을 들고 나와 행사를 한다고 한다.

행사표에 보면, ‘삼수포인트 표지석 제막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밖에 ‘삼수포인트 걷기대회’가 있고 ‘태백 강 발원지 물소리 DVD 배포’가 있다.

필자가 볼 때 이 또한 말뚝박기식 한건 위주의 행사라 본다. 물 포럼이면 물과 연관된 학술적 토론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면 됐지 새로운 작명을 하고 흔적을 남기려는듯 한 행사가 과연 바람직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 법 만들지 말고 옛 법 잘 지키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3) 삼수 유역의 문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동해로 흘러가는 중요한 강이 오십천이고 서해로 흘러가는 중요한 강이 한강이라면 남해로 흘러가는 중요한 강은 낙동강이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인류의 문화는 물을 끼고 이루어지고 발달하였다고 하니, 이 세 강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고 이 세 물줄기가 시원되는 삼수등이 태백에 있으니 태백은 삼수(三水)의 뿌리이며 곧 삼수문화(三水文化)의 근원이며 우리나라 문화의 시원이 된다고 하겠다.

삼수(三水)의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유추할 수 있고 각각의 물줄기 가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부합됨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삼수(三水) 유역의 문화 가운데 낙동강의 선비문화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과거의 거울이고, 세계 속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강의 경제문화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며, 동해안 시대의 오십천 문화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의 행동이다.

(1) 선비문화와 낙동강

낙동강가에 사는 사람들을 영남인(嶺南人)이라 한다. 물론 영남(嶺南)이란 말은 조령(鳥嶺) 남쪽을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달리 말하면 낙동강가에 사는 사람들인 낙동강인(洛東江人)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네들에게 조령(鳥嶺)은 서울로 가는 관문이자 하나의 장벽이지만 낙동강은 그네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자 삶의 동반자인 것이다. 영남인들에게 낙동강은 생명줄이기에 그 발원지인 황지를 신성하게 여겨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그 강가에 사는 자신들을 선택된 사람들로 보거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가지(永嘉誌)에 보면, 낙동강에 대해 말하길,

“전하는 말에 낙동강은 머리는 천시(天市)의 자리인 간(艮)에 두고 꼬리는 곤(坤)으로 흘러가며 위로는 은하수에 닿았으니 실로 신령스런 곳이다. 그러므로 영남에는 예로부터 명인(名人)과 현사(賢士)가 많은 것이다.”(諺傳洛水首艮而尾坤上應銀河實精靈所鍾故嶺南自古多名人賢士云)

라고 하였다.

낙동강을 대표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선비문화일 것이다.

선비라고 하는 존재는 벼슬 보다는 학문을 숭상하고 재물 보다는 청렴을 가치기준으로 삼는 시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비는 그 시대의 지성이자 인격의 기준이 되며 심지어 생명의 원동력인 원기(元氣)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선비는 신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모범이며 그 시대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의 내면이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려는 원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비는 그 시대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지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왔으며 현실적, 감각적 욕구나 세속적 부(富)와 귀(貴)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상승하기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낙동강의 맑은 물 만큼이나 맑은 심성이 영남 땅에 선비문화를 싹틔웠고 수많은 유학자들이 탄생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뿌리를 알게 됐고 자존심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시대가 서구화 되어가도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가 주어졌고 몇 백 년 되어 현대 감각에 맞지 않을 것 같은 하회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진 것은 과거의 선비문화가 현재의 우리에게 베푸는 유산이라 보는 것이다.

삼수(三水)의 땅에서 흘러간 물 가운데 하나가 낙동강이 되고 그 낙동강 가에서 선비문화가 생겨나고 그 선비문화는 우리에게 예의와 염치와 자존심을 가르치니 선비정신이 우리의 뿌리(과거)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물줄기와 같다고 보는 것이다.

(2) 세계 속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그들이 볼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이때 그들은 한국의 수도(首都) 서울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한강이 떠올랐고 '한강의 기적'은 이래서 인구에 회자되었다.

한강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척도이다.

수도권 2천 만 명이 한강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고 공업용수로 이용되어 진다. 한강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강은 휴식과 위안을 주며 모든 문화 행위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강의 옛 이름인 아리수(阿利水)를 아리랑의 원류로 여기기도 하였다.

외국의 문물이 한강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세계의 열강들이 한강을 통해 침략해 오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의 공산품이 한강에서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의 국력이 한강에서 솟아올라 세계로 날아갔다.

한강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연관 지어 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못 살던 과거를 버리고 잘 사는 세계 속의 한국(현재)으로 발돋움하는 강, 그것이 한강이고 그 강물은 태백의 삼수등(三水燈)에서 발원한 작은 물줄기가 뿌리이자 모태이다.

(3) 동해안 시대의 오십천

그 동안 우리나라는 남해와 서해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동해안은 지형적인 불리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청정한 바다와 깨끗한 환경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오십천의 실직국 지배 아래에 있던 동해안에서는 환동해권(環東海圈)을 주창하며 동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태평양을 향하고 러시아를 경유 캐나다까지 북태평양을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또한 북극항로가 열리면 구라파까지 진출할 교두보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항구인 호산항을 건설 중에 있고 동해항은 북방 전진기지로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주목 받지 못하고 변방으로 취급 받던 동해안이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미지의 세계(미래)로의

진출을 꿈꾸는 중심에 오십천이 있다. 오십천은 강물이 바다로 직접 들어 가 바다의 배가 강으로 올 수 있는 곳으로 해로(海路)에서 내륙 수로(水路)로 곧바로 연결되는 동해안에서 몇 안 되는 특수 지형을 갖춘 곳이다.

(4) 삼태극(三太極)의 땅

지리(地理)를 말할 때 산(山)과 물(水)을 더불어 이야기 하지 않고는 아니 된다. 삼수(三水)를 말하며 산(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이 있으니 물이 있는 것이고 그 물은 장차 강물이 되는 것이다.

삼수등(三水燈)에서 낙동강, 한강, 오십천이 발원되고 그 물은 남해, 서해, 동해로 흘러간다. 세 개의 큰 물줄기가 흐르니 따라서 세 개의 큰 산맥(山脈)이 형성되고 있다.

예전에는 태백산맥(太白山脈)과 소백산맥(小白山脈)으로 불리던 산맥이 최근에는 백두대간(白頭大幹)과 낙동정맥(洛東正脈)으로 불리고 있는데, 어느 것이 되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지점이고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삼수등(三水燈)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곳 삼수등(三水燈) 부근의 수세(水勢)가 수삼태극(水三太極)이요 삼수등(三水燈) 부근의 산세(山勢)가 산삼태극(山三太極)이 되는 것이다.

양태극(兩太極)은 중국 것이지만 삼태극(三太極)은 우리 고유의 것으로 천지인(天地人)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태백의 삼수등(三水燈)은 산과 물이 다 같이 삼태극(三太極)을 이루는 생명의 시원이 되는 영험한 땅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상생하는 화생만물(化生萬物)하는 곳이자 삼합상생(三合相生)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삼수등(三水燈)의 삼수(三水)가 삼산맥(三山脈)의 삼산(三山)이 되고 삼수(三水)는 삼해(三海:東海, 西海, 南海)로 흘러가고 그 삼해(三海)의 물은 오대양(五大洋)으로 퍼져가니 삼수등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 할만하다.

(5) 생명의 탄생 물의 근원

물은 생명의 요체이자 환경의 핵심이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이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환경운동을 많이 한다. 결국 환경도

따지고 보면 맑은 물이 핵심이다. 물이 맑아지면 다 맑아지는 것이요 물이 깨끗하면 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다. 삼수의 삼대강도 위에서부터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더러워질 것이다.

태백시 삼수동(三水洞)의 삼수등(三水燈)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낙동강 한강 오십천이 되어 전국토를 적시며 생명수가 되고 경제발전을 시키며 삶의 원동력이 되니 이보다 소중한 거룩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끝내는 동해 서해 남해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살찌우니 생명의 원기(元氣)라 할 것이다.

비록 발원지는 아니지만 세 물줄기 곧 삼수(三水)가 한 지점에서 시원된다는 상징성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기에 이 시점에서 삼수등을 맑은 물의 상징으로 정화하고 가꿀 것을 제안 한다.

3. 결론

태백시 삼수동 천의봉 아래에 있는 삼수등(三水燈)에서 갈라진 세 줄기의 물줄기가 낙동강 한강 오십천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삼수는 삼해로 흘러가는 것을 알았다.

아울러 삼수라는 이름을 명명한 내력을 밝혔고 잘못된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성을 강조하였다,

삼수등 부근은 물과 산이 삼태극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물은 모든 생명의 요체이고 환경도 결론적으로 맑은 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삼수등에는 새로운 표지석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세 줄기의 물이 동시에 갈라져 삼해(三海)로 흘러가는 상징적 장소이기에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명과 문화의 시발점을 생각하게 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參考圖書

-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探求堂 1968
- 陳壽 三國誌 中華書局 1975
-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75
- 金正浩 大東地志 亞細亞文化社 1976
- 盧思慎 東國輿地勝覽 明文堂 1981
- 李載浩譯 三國史記 養賢閣 1983
- 金剛山 太白的地名由來 大成文化出版社 1989
- 權紀 永嘉誌 安東文化院 1993
- 李洞石 한국의 강 홍익재 1997
- 金剛山 우리고향태백 大成文化出版社 1998
- 金剛山 靈山太白 大成文化出版社 1999
- 金剛山 土助洞地名誌 大成文化出版社 2007
- 인터넷 두산백과 낙동강,한강,오십천 2011
- 인터넷 위키백과 낙동강,한강,오십천 2011
- 인터넷 야후백과 낙동강,한강,오십천 2011
- 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2011

태백지역 문화 관광 자원

김 강 산(전.태백문화원장)

1. 인문적 자원

1) 태백산 천제단(太白山天祭壇)

* 위 치 : 태백산 정상

* 지정위격 :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28호

* 지정일자 : 서기1991년 10월 28일

* 자원설명 : 민족의 영산 태백산은 신라 때 북악이라 하여 중사(中祀)의 예를 봉행하던 곳이었으나 때론 왕이 직접 제사하던 대사(大祀)의 예로 모시던 국가 수호산이었다. 고려로 이어지던 국가치제는 조선시대에 와서는 민간신앙의 본산으로 천왕신(天王神)을 모시는 천왕당(天王堂)이라고도 하는 천제단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성역시 되었다.

2) 태백산 석장승(太白山 石長丞)

* 위 치 : 소도 당골 광장 위쪽

* 지정위격 : 강원도 민속자료 제4호

* 지정일자 : 서기1995년 3월 9일

- * 자원설명 : 삼한시대부터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 지역이었던 소도지역은 신라에서도 그 대로 성역으로 인식되었다. 신라 때 일성왕이 태백산에 친사(親祀)하며 소도 당골 어귀에 돌장승을 세웠으니 바로 현재의 태백산 석장승이다. 일명 미륵으로도 불리는 석장승은 천하대장군이 174cm이고 지하여장군은 165cm 정도로 현재의 남녀 표준 키와 유사하여 그 상징성이 주목되는 석조물이다.

3) 본적사지 삼층석탑(本寂寺址 三層石塔)

- * 위 치 : 황지동 절골
- * 지정위격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6호
- * 지정일자 : 서기2000년 1월 22일
- * 자원설명 : 황지동 절골 본적사는 번적사(蕃積寺)라고도 불리었는데 절골 안쪽에 심적사 묘적사 은적사 등 3개의 말사(末寺)를 거느린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약300여 년 전 절골에 대홍수(大洪水)가 나서 본적사(本寂寺)는 떠내려가고 3층 석탑만 남게 되었다. 탑의 양식은 전형적인 신라양식이라 하는데, 일제시대 때 도굴꾼들이 탑을 무너뜨렸고 석축이나 우물가의 빨래돌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태백문화원에서 수습하여 석탄박물관 지하수장고에 보관하였는데, 서기2012년에 태백시에서 현장 부근에 복원하였다.

4) 철암역두 선탄시설(鐵岩驛頭 選炭施設)

- * 위 치 : 철암역 구내
- * 지정위격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1호
- * 지정일자 : 서기2002년 5월 31일
- * 자원설명 : 장성지구에 있는 장성광업소에서 캔 석탄을 철암역두로 옮겨와 선별작업을 하는 시설이다. 지하에서 캔 석탄 속에는 경석이 섞여 있는데 이를 선별해서 골라내어야 석탄의 질이 높아진다. 서기1941년에 세워진 이 시설물은 우리나라의 근대산업화의 상징물이라 할 만하다.

5) 장성광업소의 금천갱 이중교(黔川坑 二重橋)

- * 위치 : 장성동과 검천동 어귀의 하천
- * 지정위격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제111호
- * 지정일자 : 서기2004년 9월 4일
- * 자원설명 : 일제의 자원수탈 과정에서 금천갱의 고열량 석탄을 나르기 위해 지형적 특성 때문에 자동차와 전차가 아래위로 다니게 이중으로 만든 특이한 다리이다. 비록 일제가 만든 다리이지만 탄광의 역사와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다.

6) 태백 구 등기소(太白 舊 登記所)

- * 위치 : 장성동 교육청 옆
- * 지정위격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제166호
- * 지정일자 : 서기2005년 4월 15일
- * 자원설명 : 태백시가 되기 전 장성읍 시절 등기소 건물이었다. 서기1960년대 초에 장성 읍사무소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며 각종 서류가 불타 없어졌다. 그 후 새롭게 지은 건물이 현재의 구등기소 건물이다. 태백의 역사에서 상징적 건축물이다.

7) 태백경찰서 망루(太白警察署 望樓)

- * 위치 : 태백경찰서 경내
- * 지정위격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제167호
- * 지정일자 : 서기2005년 4월 15일
- * 자원설명 :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온 광부들의 탈출을 감시하던 망루이다. 광부들의 출퇴근과 일상생활을 감시하던 곳으로 망루에 사이렌을 설치하고 시각을 알리기도 하였다. 일제는 간부들의 주거지는 높은 곳인 계산동에 지어 내려다 보게 했고 광부들은 독괴 부근에 집을 지어 화광동(和光洞)이라 하였다. 화광동은 나중에 왜색 이름이라 하여 없앴다.

8) 원 터(院址)

- * 위 치 : 원동의 큰터, 소도동의 동구서낭당 아래, 백산분교 옆.
-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 자원설명 : 고려와 조선시대에 교통의 요로에 역(驛)과 원(院)을 설치하여 지방으로 출장 나오는 관리와 길손들이 자고가게 하였다. 태백에는 3곳의 원(院)이 있었고 그 가운데 원동에 있던 원은 죽현원(竹峴院)이라는 이름으로 문헌에 전하고 있다.

9) 봉수대 터(烽燧臺 址)

- * 위 치 : 백산분교장 남쪽 산등
-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 자원설명 : 년대 미상으로 작은 산봉우리 위에 돌무더기가 있는데 전하는 말에 봉수대터라 한다. 아마도 우보산에서 삼척 쪽을 관망하다가 이상이 있을 때 신호를 보낸 듯하다. 일설에는 대한제국 말기에 의병(義兵)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10) 원 삼국시대 고분군(原三國時代 古墳群)

- * 위 치 : 백산분교장 뒤쪽 산록
-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 자원설명 : 학자들의 조사결과 원삼국시대 횡혈식 돌덧널무덤이라 한다. 총이 긴 늦술가락과 자기가 출토되기도 한 이 무덤들은 집단으로 10~20여 기가 있으나 관리 부실로 거의가 도굴되고 완전한 것은 드문 상태이다. 백산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였던 곳으로 추정되며 동해안이나 울진 쪽으로 가는 옛길이 있던 곳이다.

11) 최초 석탄발견지탑(最初石炭發見地塔)

- * 위 치 : 금천동(거무내미) 먹돌백이
- * 지정위격 : 비지정문화재

- * 자원설명 : 서기1920년대 상장면사무소에 소사로 일하던 장해룡(張海龍)이라는 사람이 거무내미 먹돌백이 근처에서 석탄을 발견하므로 해서 태백산 일대에 석탄광산이 생기게 됐고 오늘날 광산도시 태백이 탄생한 역사적 장소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서기1995년에 태백문화원에서 세웠다.

12) 사미창(士美倉) 터

- * 위 치 : 상사미동 창말
-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 자원설명 : 삼척시 신기면에 있던 서창(西倉)을 서기1739년(영조15년)에 상사미리로 옮긴 것이다. 조선시대 세곡(稅穀)을 모아두었다가 나라에 바치고 흉년이나 춘궁기에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쓰기도 하였다. 사미창을 서창이라고 하였는데 삼척도호부의 서쪽에 위치한 창고라고 서창(西倉)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직사각형의 창고 터만 남아있다.

13) 태백신사(太白神祠) 터

- * 위 치 : 태백산 망경사 경내
-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 천신(天神)과 단군(檀君)의 상(像)을 모셨던 태백신사는 여러 문헌에 나오는 사실인데 현재의 망경사 축대 아래쪽으로 추정한다.

14) 절 터(寺址)

- * 위 치 : - 본적사 터(황지동 절골 소재, 3층 석탑 있음)
- 심적사 터(황지동 절골 소재)
- 묘적사 터(황지동 절골 소재)
- 은적사 터(황지동 절골 소재, 암자 있음)
- 탑발 절 터(구문소동 탑발 소재, 석탑의 일부를 장명사로 옮겨 보관)
- 도릉사 터(조탄동 소재, 도릉사탑 있음)
- 심원암 터(소도동 소룻골 소재, 토불과 부도 있음)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자원설명 : 태백산 부근에는 큰 절이 없다. 현재의 절들은 대부분 정부수립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다. 현재 태백시 관내에 100년 이상 된 사찰은 없다. 함백산 넘어 정선 땅에 있는 정암사(淨岩寺)와 태백산 남쪽 경상북도 봉화 땅에 있는 각화사(覺化寺) 등이 천년 고찰(古刹)일 뿐이다. 심원암에는 매월당 김시습의 시(詩)가 전하나 절터가 경석더미 속에 묻혀 버렸다.

2. 자연적 자원

1) 태백 구문소의 고환경 및 침식지형

* 위 치 : 구문소동(동점동) 구문소

* 지정위격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17호

* 지정일자 : 서기2000년 4월 28일

* 자원설명 : 태백의 대표적 관광지인 구문소는 천연기념물 보다는 명승지로 지정되어야 할 명소이다. 구문팔경(求門八景)을 안고 있는 구문소는 물길이 산을 뚫고 지나간 도강산맥(渡江山脈)이라는 기이한 지형을 간직한 곳이다. 예부터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았고 각종 문헌에 기록이 된 곳으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곳이다.

2) 태백 장성의 하부고생대 화석산지(下部古生代 化石產地)

* 위 치 : 장성동 사리미산 정상 일대

* 지정위격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16호

* 지정일자 : 서기2000년 4월 28일

* 자원설명 : 장성동 장성터널 위쪽의 산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화석산지이다. 특히 삼엽충(三葉蟲) 화석이 집중적으로 산출되는 곳이다. 태백에는 화석(化石)이 많이 산출되는 곳으로 이곳 말고도 10여 곳의 화석산지가 분포되어 있다.

3) 용연동굴(龍淵洞窟)

- * 위 치 : 화전동 가는골
- * 지정위격 : 강원도 기념물 제39호
- * 지정일자 : 서기1979년 12월 17일
- * 자원설명 : 용연동굴은 태백에서 가장 먼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관광지로 개발되어 개방이 되고 있는 용연동굴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굴이며 장님새우, 톱툰이 등 희귀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굴 내부에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과거에 난리가 났을 때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한 곳이다.

4) 월둔동굴(月屯洞窟)

- * 위 치 : 원동 월둔골
- * 지정위격 : 강원도 기념물 제58호
- * 지정일자 : 서기1986년 11월 19일
- * 자원설명 : 월둔골에 있다고 월둔동굴이라 고 명명했는데 일명 안경굴이라고 한다. 동굴 입구에 돌기둥이 있어 안에서 바깥으로 내다보면 굴 입구가 안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수직으로 발달된 동굴로 상당히 위험한 동굴이다. 동굴 지하에 많은 짐승의 뼈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직 동굴이기에 동물들이 빠져 죽은 것으로 보인다.

5) 대덕산. 금대봉 자연생태계보호지역

- * 위 치 : 창죽동 금대봉골 일원
- * 지정위격 :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제4호(환경처 고시 제1993-33호)
- * 지정일자 : 서기1993년 4월 22일
- * 자원설명 :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환경이 좋은 곳을 보존 하자는 취지에서 금대봉지역을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곳은

한강발원지이기도 하고 꼬리치레도롱뇽 등 희귀동물 30여종과 금대손풀 등 희귀식물을 포함한 7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환경처에서 특정 야생 동식물 집단서식지로 인정한 것이다.

6) 낙동강 발원지 황지(黃池)

- * 위 치 : 황지동 중심지
-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 자원설명 : 523km 낙동강의 발원지로 널리 알려진 황지는 흔히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로 더 알려져 있다. 이 못 때문에 황지리 황지읍의 행정지명이 생겨났다. 황부자의 전설이 전해지는 황지는 우리나라 장자못 전설의 시원지로 알려져 있다. 명승지나 특별보호구로 지정이 되어야할 곳이다.

7) 한강 발원지 검룡소(檢龍沼)

- * 위 치 : 창죽동 금대봉골
- * 지정위격 : 국가지정 명승 제73호
- * 지정일자 : 서기2010년 8월 18일
- * 자원설명 : 514km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된 곳이다. 그동안 문헌상으로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졌었으나 도상 실측한 결과 검룡소가 우통수 보다 32km나 더 길다는 것이 밝혀져 건설교통부와 국립지리원으로부터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되었다. 검룡소는 주변에 '대덕산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이 있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태백에서 가장 주목 받는 명승지이다.

8) 조탄동의 전나무

- * 위 치 : 조탄동 성황목
- * 지정위격 : 태백시 보호수

* 지정일자 : 서기1994년 12월 26일

* 자원설명 : 당초에 삼척시 보호수였었는데, 서기1994년 12월 26일 조탄동이 삼척시에
서 태백시로 편입되면서 같이 이관된 나무이다, 원래는 도릉사(桃陵寺)의 풍치
림이었으나 절이 망하고 그 나무를 성황목으로 삼아 나무 앞에 성황당을 짓고
마을의 수호목(守護木)으로 보호하였다. 수령(樹齡)은 약500여 년이라 한다,

9) 혈리 연리목(連理木)

* 위 치 : 혈리의 재피골 산등

* 지정위격 : 비지정 문화재

* 자원설명 : 혈리의 재피골 산등에 있다. 수령(樹齡) 약300년 된 잣나무로 두 개의 별다
른 나무들이 몸통이 붙어 있는 기이한 나무이다.

중국의 유명 시인인 백거이(白居易, 號 樂天)가 장한가(長恨歌)라는 시(詩)로 당나라 현종과 양
귀비의 사랑을 읊었는데 그 시의 한 부분을 보면, ‘하늘에선 비익조가 되길 원하고 땅에선 연리
지가 되길 원하네’(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라는 내용이 널리 퍼지면서 연리지는 사랑의
징표가 되고 만다. 그래서 연리지(連理枝) 또는 연리목(連理木)은 사랑의 나무라 하고 상사목(相
思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원래 연리지는 후한시대(後漢時代) 채옹(蔡邕)의 설화에 나오는 나무로, 그때는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응하여 생기는 기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650여 년이 지난 당나라 때에 와
서는 백낙천의 장한가 시 한수로 남녀간의 사랑나무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연리지가 나타나면 출천지효(出天之孝)나 성인(聖人) 또는 성군(聖君)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어쨌거나 혈리의 연리목(連理木)은 기이한 나무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 되기도 남을 귀중
한 나무로 태백시의 상징 나무로 잘 가꾸어야 할 것이다.

호식장(虎食葬)

김 강 산(태백향토사연구소장)

1. 서론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곳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으로 되어 있고 평야지대는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야지대에 모여살고 산악지대에는 화전민(火田民)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항상 빈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싸움으로 늘 불안정 된 생활을 하여 왔다. 특히 산악지대에는 무서운 맹수(猛獸)들이 많아 자주 사람들과 마주쳐 피해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범은 인간에게 최대의 적(敵)이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두루 살펴보면, 태종 2년에 경상도에서 범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수 백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중종 19년엔 황해도에서 범에게 다친 사람이 40여명이나 된다고 하였으며, 영조 19년에는 평안도 강계에서 20여명이 범에 물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조 28년에는 범이 경복궁 후원에 들어 왔으며, 영조 30년에는 경기도 지방에서 한 달 동안 범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120여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헌에 나타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사례일 것이며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 산간벽지 백성들의 죽음은 너무나 많았을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면,

“우리나라의 시골 산간에는 범의 피해가 많아 밤에는 감히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도 힘들다. 속칭 호람(虎覽)이라 하여 범이 사람과 가축을 잡아먹으니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라고 하였으니 길을 가다가 밭을 매다가 나물이나 나무하러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에게 잡아먹혔겠으며, 집안에서도 변소에서도 범에게 물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렇듯 범은 백수(百獸)의 왕(王)으로 거칠 것이 없는 절대적 존재로 동물과 사람에게 공동의 적이자 먹이 사슬의 가장 위쪽에 자리한 무섭고 두려운 맹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여년 전만해도 범에게 잡아먹히는 호식(虎食)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었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 교통사고 보다 높은 것이었다.

범에게 당하는 모든 환란을 통틀어 호환(虎患)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치기만 해도 호환이라 한다. 그러나 범에게 잡아먹히면 호식(虎食)이라 하고 또는 호사(虎飢) 호람(虎覽)이라 한다.

사람이 죽어 땅에 묻으면 매장(埋葬)이요 불에 태우면 화장(火葬)이며 물에 넣어 물고기 밥이 되게 하면 수장(水葬)이다. 새에게 뜯어 먹히게 하면 조장(鳥葬)이라 하고 자연에 방치하여 비바람에 썩게 하면 풍장(風葬)이라 한다.

이렇듯 다양한 장례풍습이 있는 것은 지역적 특성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내세관(來世觀)과 종교관(宗教觀) 등이 작용하여 생긴 것이라 보겠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장례풍습 하나를 추가하게 되니 바로 호식장(虎食葬)이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호식(虎食)이라 하고 호식(虎食)된 뒤에 행하는 장례절차가 있으니 호식장(虎食葬)이라 한다.

범은 사람을 잡아먹고는 꼭 머리를 남겨둔다고 하며 때로는 팔 다리 혹은 몸통의 일부분도 남겨 놓는다고 한다. 그러면 유족들이 이것들을 찾아 거두어 특유의 방법으로 장사지내게 되는데 이것을 호식장(虎食葬)이라고 한다. 그러니 호식장은 사람이 범에게 잡아먹혀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다.

대개 범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를 남겨두고 그밖에 신체의 일부를 남겨두는데 유족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유족들은 그 유구(遺軀)를 거두어 그 자리에서 화장(火葬)을 한 다음 그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그 돌무덤 위에 시루(甑)를 얹어 놓고 그 시루의 가운데 구멍에 가락이

나 칼을 꽂아 놓는 특이한 형태의 호식총(虎食塚)이라는 무덤을 만드는데 이 과정의 장례를 호식장(虎食葬)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어찌하여 호식장(虎食葬)에서 화장(火葬)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며 시루를 얹어놓고 가락을 꽂아 놓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범이 이 땅에서 사라진지 수십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산골 마을엔 호식총(虎食塚)이 남아있고 50~60여 년 전만 해도 호환(虎患)이 있었으니 이 글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호식총(虎食塚)을 근거로 쓴 글이며, 이 호식장(虎食葬)은 태백산(太白山)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동해의 5개 시군과 경상북도의 봉화, 울진, 영양의 3개 군 등 8개 시군과 그 밖의 다수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2. 호식(虎食)과 유구(遺軀)의 발견

1) 호식(虎食)

중국의 문호(文豪)인 노신(魯迅)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먼저 범 이야기와 호환(虎患)에 대해 물었다고 하며 구한말(舊韓末) 프랑스 기자가 우리나라의 사정을 취재하여 보도한 ‘르 프디 주르날’이란 신문 삽화를 보면 호환(虎患)에 대한 그림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과거 우리나라에 범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는 범이다. 그 이상 더 강하고 무서운 맹수는 없다. 무기가 없는 사람에게 범은 숙명적 먹이 사슬의 전횡자(專橫者)이며 신(神)이나 다름없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기에 민간에서는 산신(山神)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산신의 사자(使者)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범을 맨손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인광(磷光)이 흐르는 범의 눈빛만 마주쳐도 기절하고야 만다. 사람은 육상동물 가운데 가장 느리다. 범은 동물 가운데 가장 무섭고 날세며 힘이 센 짐승이다. 그렇기에 범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산기슭에 자리한 모든 산간 마을에 호식(虎食)의 사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호식(虎食)은 다반사였다.

이렇게 사람이 범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사람에게 무기(武器)가 없기 때문이었다. 조선조 말기부터 민간에 무기소지를 금하였고 거기에다 범을 산신으로 숭배하는 민간신앙도 한몫을 하고 호식을 팔자소관으로 치부하는 민간의 정서가 범에게 제대로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당하였던 게 아닌가 한다.

대개 사람을 해치는 범은 정상적인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우연히 사람 사냥을 하게 되어 인육(人肉)을 맛본 경우라고 한다. 이들 범에게 무기 없는 사람은 너무도 손쉬운 먹이 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물 뜯으러 갔다가, 밭 매다가, 계곡에서 목욕하다가, 변소에 갔다가, 잠자다가, 대책 없이 범에게 물려가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 호식(虎食)이다.

2) 유구(遺軀)의 발견

범은 사람을 잡아먹되 꼭 표식을 남긴다고 한다. 특히 머리 부분을 먹지 않고 산등성이에 놓아두거나 또는 나무 등걸, 바위 위쪽, 바위 아래 등에 놓아둔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범이 산신에게 호식(虎食)되어 갈 운명의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아뢰는 의식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초원에서도 맹수들은 사냥감의 머리는 먹지 않는다. 이것은 머리 부분이 뿔이 있거나 또한 살도 별로없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보면

“패사에 이르기를 범의 이름은 이이(李耳)이다. 보통 범은 인축(人畜)을 잡아먹되 귀 위로는 먹지 않으니 그것은 제 이름자를 범하기 싫어서 이다” 라고 하며 범이 머리를 먹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범이 귀 위로는 먹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로 인축(人畜)의 머리뼈는 몹시 아물고 딱딱하고 큰 뼈라서 범이 씹어먹을 수 없기에 남기는 것이다. 범이 귀 위로는 먹지 않는다고 하나 우리나라 처럼 먹이가 풍족치 못한 환경에서는 예외가 있다. 범도 배가 덜 부르면 귀고 뒤통고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범은 배가 덜 부르니 불에 붙은 살점과 귀와 코까지 뜯어 먹어 뺨질뺨질한 상태의 두개골(頭蓋骨)을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이 범에게 물려 가면 유족들은 횃불을 들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아예 체념하고 날 밝기를 기다려 유구(遺軀)를 찾으러 나선다. 범이 가까이 물고 갔으면 쉽게 찾지만 멀리 물고 갔으면 몇 일이 걸려야 찾을 수가 있다. 때로는 영영 못 찾는 경우도 간혹 있다. 여기에서 용어를 유해(遺骸)라 하지 않고 유구(遺軀)라 하는 것은, 유해(遺骸)는 이미 오래되거나 땅에 묻히거나 하여 뼈에서 살이 탈락된 상태를 말하고 유구(遺軀)는 아직까지 뼈에 살이 붙어 있고 신체가 썩지 않고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유구(遺軀)를 찾으러 가보면 호식(虎食) 당한 곳에 죽은 사람의 시신은 모두 사라지고 두개골(頭蓋骨)만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나 때론 팔 다리나 몸통의 일부도 남아 있고 신체의 큰 뼈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유족(遺族)들은 죽은 사람의 유구(遺軀)를 발견하게 되면 머리가 발견된 곳으로 흩어진 유구를 모으고는 곡(哭)을 하고 유구 위에 저승 가서 입을 옷가지를 놓는다. 그리고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3. 화장(火葬)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유구(遺軀)를 유족(遺族)들이 찾아내어 발견한 그 자리에서 횃불을 피우고 유구를 화장(火葬)하게 된다.

이러한 화장은 일견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우리겨레에게도 화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불은 부정하고 사악한 것을 없애는데 사용했고 나쁜 액운을 물리치는데도 사용했다.

무당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를 타넘는 것은 부정을 털기 위한 행위이고 소지(燒紙)를 올리는 것은 불로서 액운을 태우고 소원을 비는 것이며 염병, 괴질 등 악질(惡疾)에 걸려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하는 것은 불로서 사악함을 없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유구(遺軀)를 태우는 것도 이러한 사악한 불상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이 화장하는 일은 비상한 일이다. 매장(埋葬)이 절대적이라 할 시대에 화

장(火葬)을 하는 경우는 죽은 사람과 자손과의 결별을 뜻하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 진다. 더 이상 조상과의 연결을 원치 않을 경우인데 예컨대 염병, 지랄병, 문둥병, 괴질 등 후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악질(惡疾)로 사망한 조상은 화장(火葬)을 하는 예가 많다.

범에 물려가 죽은 사람도 창귀(尙鬼)의 발호로 죽었기에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또 다른 후손이 호식(虎食)되어 갈 수 있기에 화장하여 액운을 막자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수습된 유구(遺軀)가 온전치 못하여 매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조상님을 태울 수는 없다고 하며 시신을 수습하여 묻었는데 밤에 범이 나타나 무덤을 파내고 시신을 다시 꺼내어 갔더라고 한다. 범은 남은 시신을 먹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遺軀)를 태우는 것은 두 번이나 범의 밥이 되는 것을 막고 남긴 먹이를 범이 두려워하는 불로 태움으로서 모든 재앙을 없애려는 것이다. 유구(遺軀)를 태울 때는 반드시 발견된 그 자리에서 하고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

4. 돌 무덤

범에게 잡아먹히고 남은 유구(遺軀)를 화장(火葬)하고 나니 모든 것이 소멸되어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유족들은 화장하여 재만 남은 그 위에 돌을 주서다가 돌무덤을 만드는데 바로 호식총(虎食塚)이다. 돌이 많은 곳에서는 한 길 가량 되는 큰 돌무덤을 만들지만 돌이 귀한 곳에서는 몇 개의 돌을 포개어 놓는 정도의 형식적인 돌무덤을 만든다.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돌무덤이 큰 것은 높이 약 160cm 둘레 약 800cm 길이 약 280cm 폭 약 200cm 가량 되는 큰 것이 있는가 하면, 높이 약 50cm 둘레 약 160cm 폭 약 50cm 가량 되는 작은 것도 있고, 몇 개의 돌을 포개어 놓은 것도 있고, 아예 돌무덤이랄 것도 없는 달랑 한 두 개의 돌만 있는 것도 있었다.

돌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두 번 다시 후손이 그 곳에 오지 않겠다는 것이고 구태여 별초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있고, 실제 호식총(虎食塚)에 후손이 가지 않는다.

호식총(虎食塚)의 돌무덤은 그 모양이 조산(造山)이나 성황당의 돌무더기와 같고 몽고지방의

오보(鄂博)와 형태상으로 비슷하다,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금역(禁域) 혹은 성역(聖域)으로서의 역할은 같다고 보겠다.

호식총(虎食塚)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 탈이 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 혼이 난 사실이 있는가 하면 그 곳을 건드리고 탈이 나서 집안에 우환이 생겨 큰 고통을 하고 창귀를 가두어 그 곳에 가져다 놓고 돌무덤을 원래대로 해놓고야 무사했다고 한다.

안동지방의 영가지(永嘉誌)에 보면 돌로 만든 존당조산(尊堂造山)을 건드리자 대낮에 깜깜해지며 비바람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호식총의 돌무덤을 건드리고 탈이 난 것도 금역(禁域)을 건드린 결과가 아닌가 한다.

호식총(虎食塚)의 돌무덤은 무서운 금역(禁域) 또는 신성한 성역(聖域)으로서 범에게 물려간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며 범이 호식(虎食)한 그 곳 자체가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그런 곳에 만든 돌무덤이야말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산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산 속에서 호식총(虎食塚)을 발견하면 얼른 그 곳을 피해버리고 그 근처에는 가기를 꺼려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돌무덤을 설무덤, 설담, 돌다물, 범다물, 설무덕, 돌무덕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산(山)의 골(骨)이요 토(土)의 정(精)이며 기(氣)의 핵(核)인 돌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신성한 장소를 뜻한 성역(聖域)과 금역(禁域)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다.

5. 시루 (甑)

범이 무섭기는 하지만 범을 욕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신 창귀(尙鬼)를 욕한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 강자는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고 대신 욕먹을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귀이다. 사람을 잡아먹어 처단의 대상인 범은 원체 강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고 대신 범에게 잡아먹히도록 유인한다고 믿는 창귀를 원망과 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예이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고 남긴 유구(遺軀)를 수습하여 화장(火葬)하고 돌무덤을 만들었지만 안심이지 않는다. 그것은 범에게 잡아먹힌 뒤 창귀(尙鬼)가 된다는 죽은 사람의 영혼(靈魂)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냥 두면 부모형제, 친구, 이웃사촌,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

촌까지 찾아다니며 불러 내어 범의 밥이 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귀(尙鬼)를 꼼짝 못하게 그곳에 묶어 두기 위해 돌무덤 위에 시루(甗)를 얹어 놓게 된다.

어찌하여 돌무덤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 것일까.?

예로부터 시루는 곡물을 찌내는 기구이다. 떡을 찌 낸다던가 어물과 육류를 찌내기도 한다. 고대(古代)에서는 죄인을 시루에 찌 죽이는 형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루는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는 도구로서 귀신도 그 앞에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다. 또한 시루는 주술(呪術)에 이용되기도 하여 귀신을 제압하는 도구로 사용 했다.

그리고 시루에는 구멍이 9개 있는데 이는 구천(九天) 곧 하늘을 뜻 한다. 시루의 크기에 따라 구멍이 9개, 7개, 5개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하늘을 상징 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시루를 돌무덤 위에 얹어 놓음으로서 그 밑에 있는 창귀를 제압한다고 믿는 것이다.

시루를 얹어 놓으면 그 형상이 둥근 반구형(半球形)의 궁륭(穹窿) 처럼 생겼는데 위쪽에 아홉 개의 구멍이 있어 하늘처럼 보이는 것이다. 시루를 얹어 놓으면 그 형상이 사방이 웅성(甕城)이어서 철벽(鐵壁)과 같고 위쪽으로는 9개의 구멍이 뚫려 하늘을 형상하니 날아서나 나갈 수 있는 사지(死地)와 같은 곳이 되어 버리기에 창귀가 꼼짝 못하고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해야만 창귀의 발호로 다리 놓기의 악순환이 생겨 호식(虎食)되어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6. 가락

가락은 ‘가락꼬지’ 라고도 하는데 길쌈을 하기위해 물레를 자아 싯뚝(싯꾸리)을 만드는데(감는데) 사용하는 길다랗고 둥근 쇠꼬챙이 이다.

호식장(虎食葬)에서 유구(遺軀)를 화장(火葬)하고 돌무덤을 만들고 그 돌무덤 위에 시루를 얹어 놓게 된다. 그리고 나서 얹어 놓은 시루의 가운데 구멍에 가락을 꽂아 뚫으로 해서 완전한 호식총(虎食塚)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어찌하여 시루구멍에 가락을 꽂아 두는 것일까.?

귀신을 제압한다는 시루를 얹어 놓아 창귀를 꼼짝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게 유족들의 마음이다. 그만큼 창귀는 보통 귀신이 아니라 악독한 귀신으로 호환(虎患)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재삼, 재사의 만약에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시루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서 그 시루 위에 가락을 꽂아 놓고서야 비로소 안도하게 되는 것이다.

가락을 꽂아 놓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인데 반해 때론 부엌칼을 꽂아 두는 경우도 있다.

옛날 사람들은 벼락을 칠 때 무쇠꼬챙이가 내려와 친다고 믿었다. 실제로 벼락 맞은 나무를 보면 껍질이 홀랑 벗겨져 있고 벗겨진 나무 표면에 가느다란 홈이 곧게 혹은 나선형으로 나무의 뿌리 부분으로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홈을 따라 내려가 나무 뿌리 부분을 파면 무쇠꼬챙이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죄진 사람이나 사악한 귀신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와 벼락을 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벼락 칠 때 내려온 쇠꼬챙이라 하여 초학(학질) 앓는데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한다.

원래 가락의 용도는 물레의 괴물 위에 세운 괴물기둥 사이에 가로로 길게 꽂혀서 실꾸리(실통)를 감기 위해 물레 줄에 의해 뱅글뱅글 돌아가는 길고 둥근 쇠꼬챙이다.

호식장을 조사하기 위해 70~80세 되는 100여명의 노인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였는데, 시루구멍에 가락을 꽂아 놓는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약 90%에 달하는 노인들이 비슷한 답을 하였다. 그것은 가락이 물레의 괴물기둥에서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는 물건이니 그것을 꽂아 놓으면 창귀(尙鬼)가 그 속에서 가락이 돌듯이 뱅글뱅글 돌기만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한다. 참 재미있는 비유이고 우리 조상님들의 사고가 슬기로웠음을 알 수 있다.

가락을 꽂는 것이 해학적 간접 처방이라면 부엌칼을 꽂는 행위는 귀신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7. 결론

범은 사람을 잡아먹고 나서 머리를 남겨두며 때로는 머리 외에 신체의 일부를 남기기도 한다. 그것을 유족들이 발견하여 발견한 장소에서 화장(火葬)을 하고 재만 남은 그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놓고 그 시루의 가운데 구멍에 가락을 꽂아 놓는 것이 호식(虎食)되어

간 사람의 무덤인 호식총(虎食塚)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무덤을 만드는데 대해 알아보았고 그것을 간추리면,

- 1) 화 장(火葬) : 모든 사악함을 태워 완전소멸 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고,
- 2) 돌무덤(積石塚) : 망자(亡者)와의 인연을 끊고 별초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시는 오지 않아도 되고 돌무덤 자체가 금역(禁域)을 의미 한다.
- 3) 시루(甗) : 하늘을 뜻하고 산 것을 죽이는 형구(刑俱)로 철옹성(鐵甕城) 같이 창귀를 가두는 뜻이 있다.
- 4) 가락 : 벼락을 뜻하고 가락의 용도처럼 맴돌기만 하고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말라는 뜻이 있다.

위의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서운 창귀를 제압하는 것으로 믿기에 사람들은 특이한 형태의 호식총(虎食塚)을 만든 것이다.

창귀는 물귀신과 같이 다리를 놓는다고 한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에 악순환이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는 그곳을 빠져나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범에게 영원한 노예로 묶여 있는 창귀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오려 하고 사람들은 범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 다리 놓기의 악순환을 막고자 화장(火葬)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얹어 놓으며 그 위에 가락을 꽂는 것이다.

창귀(尨鬼)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범에 물려간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을까? 창귀는 악독한 귀신이어서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며 해코지를 하는 고악한 귀신이기에 이중(二重) 삼중(三重)의 방벽으로 창귀에 의한 환란을 막고자 한 옛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호식총(虎食塚)인 것이다.

자연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범이며 무기(武器)가 없는 사람에게 범은 신(神)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에 호식(虎食)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팔자소관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보고자 하는 소박하면서도 애절함이, 호식총(虎食塚)처럼 기이한 형태의 무덤을 만드는 호식장(虎食葬)이란 장례의식(葬禮儀式)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 이 글은 서기1988년도에 태백문화원에서 발간한 호식장(저자, 김강산)의 내용을 간추린 것임을 밝힌다.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문화 칼럼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통일을 준비하는 태백시를 주목하자 - 이상출

통일세대/백두산여행 - 벤토레이 신부

네 번째 강을 흐르게 하라 - 최요한

통일을 준비하는 태백시를 주목하자!

이 상 출

태백해설사협동조합 이사장
강원도스토리텔링대회 최우수상 수상(2010))

우리는 해마다 서울수복일인 9월 28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시의 경우 지난 2013년 9월 28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그동안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도 끝에 꿈꾸어왔던 현실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세계2차대전으로 동서로 갈라진 독일의 경우 니콜라이교회라는 작은 신앙공동체에서 시작되었던 통일염원기도회가 45년만인 1990년 통일독일을 이루었듯이 언젠가는 다시 통일이 될 한국(대한제국)은 같은 해인 1945년의 3년후인 1948년 남북이 둘로(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갈라졌고, 그후 1950년 남북전쟁으로 더욱 고착화되어 오던 분단된 한반도에서도 어디에서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가 시작될 것이기에 필자는 이를 눈여겨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필자가 사는 동네 삼수동 해비타트가 바로 그러한 위대한 일을 시작한 곳의 입구인 태백골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뒤늦게나마 이를 깨닫게 된 것은 참으로 행운중의 행운이 아닐 수가 없으며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한국염원기도회는 첫시도는 바로 지금부터 49년전인 1965년 강원도 산골짜기에 정착하기 시작한 아처 토레이(대천덕)신부가 설립하여 섬기던 예수원이라는 신앙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의 가문은 이렇습니다.

R.A 토레이 1세는 세계적인 성령학자인 D.L. 무디의 동역자로서 시카고의 무디성경학교와 LA의 비올라 대학설립자를 지냈으며 1902년 중국을 첫방문하였고 1903년 원산과 1907년 평양으로 이어지는 한국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20여년간 한국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아들 R.A. 토레이 2세 또한 32년간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한국전쟁 휴전해인 1953년 한국에서 와서 의료, 사회봉사, 사업, 정부 요직을 담당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헌신해왔습니다.

R.A. 토레이 3세인 대천덕신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은 여생을 한국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고 1957년 입국하여 1965년 하늘아래 첫동네인 태백시 삼수동(당시 삼척군 하장면) 하사미리 산골짜기에 와서 예수원을 설립하였고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공동체생활을 통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인근 피재(피안의 언덕)에 삼수령목장을 짓고 그 아들로 하여금 통일세대 양성을 위한 청소련수련센터와 대안학교인 생명의강 학교를 설립토록 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고 여겨지며 그의 4대 가문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평소 대천덕신부는 분단된 한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예수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인 피재 인근 임야를 산림청로부터 임대를 받아 삼수령목장을 짓고 처음에는 양을 길렀으나 지금은 한우를 키우며 통일을 준비하는데 혼신의 열정을 쏟으셨고 돌아가시기까지 한국 국민이 통일을 위한 ‘준비된 백성’으로서 삼수꼭지점에서 일치를 위한 통일 염원연합기도운동을 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2002년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낸 장남 벤토레이 즉, R.A. 토레이 4세가 미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태백시 삼수령목장으로 정착하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삼수령센타 네 번째강(생명의강) 프로젝트 추진본부장이고 그 아내 리즈 토레이 또한 생명의강학교 교장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세계적인 영적지도자 로렌 커닝햄의 ‘선교한국,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일어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코리아비전전국투어가 실시되는 가운데 그해 9월 28일 태백과 도계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그를 초빙, 삼수꼭지점에서 그의 아버지의 꿈이자 우리겨레의 꿈인 산상연합통일염원기도회를 주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날은 아버지가 평소 피재 삼수령에서 바라던 1차 꿈이 실현되었던 날이고 2차 목표인 통일한국을 실현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의 삼수 즉, 한강(서쪽) 낙동강(남쪽) 및 오십천(동쪽)의 발원지인 삼수꼭지점(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교차점)에서의 산상통일염원연합기도회를 통해서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한국의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비전이 구체화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은 한국전쟁 서울수복일이어서 더욱 뜻 깊은 날이었고 귀빈으로 세계

적인 명문대학 한동대학교 김영길총장과 전 유엔대사까지 참석한 가운데 김연식태백시장과 고재창태백시의장이 축하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경우 한국통일의 초점은 첫 자락인 백두산에서 끝자락인 지리산을 지나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한가운데 즉, 유사 이래 수천년전부터 하늘(창조주)에 제사를 지내온 태백산 천제단(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에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래 세계적인 영성지인 예수원이라는 작은 신앙공동체서 시작되었던 통일염원기도회가 이제 남북분단이후 65년만에 삼수꼭지점에서의 산상통일염원기도회로 승화되어 여기서 또한 북쪽으로 흐르는 네번째강인 '생명의강'을 발원하여 북한 땅으로 흘러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통일한국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인 2011년 한국지리학협회에서 밝혀낸 정확한 삼수꼭지점이 바로 그동안 대천덕신부가 평소 발견하여 중보기도한 지점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곳이 남북통일을 위한 베이스 캠프(전초기지)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며 상처받은 자를 위한 치유를 위해서 억압받는 자의 자유를 위해서 또한 낙심한 자들을 위한 소망을 주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향한 창조주의 부르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막장인생과 배추농사나 카지노의 대박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겨레의 미래이자 꿈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는 한국통일과 민족화합을 위한 생명존중대박운동인 통일한국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의집 우리 태백시 산골짜기 하사미리 예수원은 연간 1만 명이 찾아드는 세계적인 영성수련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으며 피재의 삼수령센타는 통

일세대를 양성하여 이끌 글로벌 청소년수련센터가 될 것이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 인근에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십연수원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삼수령꼭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통일을 위한 대제전인 통일한국염원연합기도회는 통일한국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거룩한 통일준비운동이 벌어지는 이곳은 전국 문화관광자원 중 지역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으며 우리 태백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가장 매력 있는 즉 가치제고를 위한 실마리가 될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태백시도 이곳에 초점을 맞춰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도전해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 한국에서의 첫성화봉송 내지 합화예정지인 백두대간 중심에 우뚝 선 태백산 천제단과 그 아래 함백산 자락에 위치한 삼수꼭지점을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통일의 베이스캠프(전초기지) 즉, 통일제단으로 승화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 재생하는 도시로 거듭난다면 더 값지고 성공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우리 광도 태백시는 훌륭한 관광도시의 성공한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R.A. 토레이 4대 가문(120년간)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동방의 햇불이라고 부러워했던 한국 땅에 뿌리내려 에텐의 동쪽(오투리조트 배경으로 한 MBC의 창사60주년 기념작 2008.08.25.~2009.03.10.) 약속의 땅(광산촌을 배경으로 한 KBS2 연속극, 1982.01.04. ~ 1972.09.17.)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크고 밝은 땅 한밤땅 태백(太

白)에 정착하여 가꾸고 일군 땅, 우리 마음의 고향 태백시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백두대간 중심, 세계적인 산소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전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광도였던 우리 태백시가 국제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클린(Clean) 그린(Green) & 휴먼(Human) 도시(City)로서 유럽풍의 선진복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난다면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다 함께 살아가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통일된 한국 땅에서 전국 최고의 힐링&에듀테인먼트 휴먼도시로서 변모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함께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전시민이 홍보요원이 되어 각자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알리며 가장 많이 안내하도록 보다 낮아지고 보다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겸손하게 고을 마다 품앗이로 서로 찾아다니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마을기업과 영농조합 등 협동조합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며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인간미를 창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 각자가 각처에서 우리 태백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최고의 힐링&에듀테인먼트 휴먼도시의 베스트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수료한 북한학교와 노동학교 및 희년학교를 통해서 본 통일을 준비하는 대안학교 생명의강학교가 최근 백두산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을 바라보며 기고한 네번째강 계획추진본부장인 예수원 벤토레이대표와 최요한학부모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일세대

벤토레이

예수원 대표
네 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우리는 삼수령 목장에서 여름 노동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명의강 학교는 2학기가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등 1, 2학년 과정으로 시작된 학교가 5년이 지나 다가오는 12월에는 첫 고등학교 졸업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학교에겐 중요한 이정표이며, 학교를 계속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부분입니다.

올 여름, 예수원 출신 생명의강 학교 재학생들과 두 분의 선생님 그리고 예수원 회원들이 러시아, 중국, 백두산을 여행하고 돌아온 일에 대해 우리는 흥분됩니다. 이는 네번째강 계획과 연결해서도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 중 다수는 어른들과 함께 우리나라 남단에 위치한 지리산을 다녀왔고, 삼수령목장 경계를 지나는 백두대간의 시작점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이 북쪽으로 백두산까지 이어집니다. 백두대간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우리에게 네번째강, 북한으로 흐르는 생명의 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시작점인 지리산과 끝이 백두산, 예수원과 삼수령목장에 있는 백두대간의 구간을 다녀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올 여름, 노동학교에서는 참가자들(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된 노동과 더불어 탈북자

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알아가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3주 동안 이어진 노동학교 기간, 특별한 토크콘서트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배경과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녁시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한 주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밤 우리 모두 함께 삼수점에 모여서 우리사회와 나라의 모든 분단의 치유와 일치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삼수점은 한강, 낙동강 오십천이 흘러서 만나는 곳으로, 이곳에서 “네 번째 강”이 백두대간을 따라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네번째강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격려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이 바로 “통일세대”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분단된 조국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이 도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은 mp3, 인터넷 게임, 문자, 패션 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실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도전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들에게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도전하지 않았고, 이 나라의 필요와 이 땅의 회복에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초점이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에만 맞춰지고 있으니 우리 청소년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떨어져 자신들의 바쁜

삶에 매진하고 그들을 내버려둘 때, 청소년들에게는 인생의 더 큰 의미를 찾도록 이끌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동학교에 오면, 모든 전자기기는 뒤로하고 손을 더럽히고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여 일합니다. 뜨거운 재양 아래서 혹은 퍼붓는 빗속에서 그들 자신의 노동으로 일이 성취된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은 커다란 성취감을 얻습니다. 도전에 응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나라와 분단의 현실을 배울 때, 흑암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필요를 볼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다 한다면 이 세대는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 시편 24:3~6 -

우리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갈 때, 우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때 -세상이 추구하는 지위와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 - 청소년들은 삶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우리 어른들을 다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TV로부터, 이 땅에 만연한 오락 문화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람에게 존경 받으려는 추구를 멈추고, 물질적 부를 쌓기 위해 날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거룩과 의와 정의의 깃발을 세우면 그들도 반응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노동학교를 통해서 또한 생명의강학교 교실에서 청소년들이 도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통일세대입니다. 이들은 조국의 미래가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이 조국을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통일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이들에게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큰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가르치고 도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강 소식지를 통해서 이들 청소년들이 나누는 생각과 백두산 여행 및 노동학교를 통해서 얻은 그들만의 통찰력을 읽고 즐기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갔던 분들의 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글들의 선생님, 인도자, 부모들은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고, 새로운 한국, 이름뿐인 통일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님을 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한 큰일에 쓰임 받을 준비된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 바로 통일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글 번역, 조현정)

백두산여행

벤토레이

예수원 대표

네 번째강 계획 추진본부장

그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해 왔듯이, 우리는 이전에 기대해 보지 않았던 종류의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미래를 위한 연결고리를 만드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큰 격려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2006년 5월, 리즈 토레이 교장과 저는 네번째강 계획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연변과학기술대에 초대 받아 갔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기쁨이며 특권이고, 영예였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나이든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김진경 총장님이 예상치 못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삼수령목장의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북쪽 끝에 해당하는 백두산 여행을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대간은 우리에게 네번째강, 즉 삼수령에서 북한으로 흘러갈 생명의 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날이어서 수려한 경치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 정상에서 이렇게 맑은 날씨를 맞는 것은 흔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리즈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처럼 경치는 정말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는 김진경 총장과 우리의 가이드로 섬겨준 분들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신 주님께도 감사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생명의 강 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 여행과 백두대간은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통일 된 새 한국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별한 미래에 관해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후, 어느 해엔가는 삼수령 목장에 사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백두대간의 남쪽 끝에 해당하는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생명의강 학교 재학생 몇 명과 아버지들 및 예수원 회원들 몇이 함께 지리산 등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원과 삼수령 가까이 있는 백두대간 언저리를 모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학생, 교사, 예수원 회원들이 백두산 천지를 향해 믿음 여행을 계획해 다녀왔습니다.

주님은 이 모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동안 행하신 일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기대합니다.(글 번역, 조현정)

네 번째 강을 흐르게 하라!

최 요 한

예수원회원
생명의강학교 학부모

9월 20일 아침 6시, 10명의 사람들이 삼수점에 모였습니다. 삼수점에서 예수원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14km를 걷기 위해 예수원에 있는 공동체가족들과 학생들 그리고 태백에 있는 생명의 강 학교 교사들이 모인 것입니다. 한강, 낙동강, 오십천 세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강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둘러서서 한마디씩 기도문을 올리고, 우리는 조형물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네 번째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겨울 어느 날에 “네 번째 강을 흐르게 하자!”는 작은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5명의 학생들과 한 명의 교사 그리고 두 명의 아버지들이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노고단에서 천황봉까지 3일에 걸쳐 걸었습니다. 산에서 밥을 제대로 먹으려면 “압력밥솥”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변의 도움말을 듣고, 무거운 ‘압력밥솥’을 배낭에 넣고 산행을 할 만큼 초보자들로 이루어진 첫 여행팀이었습니다. 3일간의 산행 동안 확인한 것은 자녀들의 성장이었습니다.

어른 몫을 감당할 만큼 몸이 자라있었습니다. 자기 배낭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

지 않고 다른 이를 돌아볼 만큼 생각이 자라있었습니다. 몸과 발이 무거워 뒤흔치는 저를 기다릴 만큼 마음이 자라있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을 보며 작은 몸부림이 구체적인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겠다.” 나누어진 또 하나의 형제를 위해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는 것이 “네번째강”입니다. 이 강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된 나라를 준비하는 남한과 북한 모두를 위한 강입니다. 강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흘러 가야 하는 것이죠! 흐르른 강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것은 강일 수 없습니다.

‘검룡소’는 삼수령에서 발원한 물이 땅으로 뿜어져 나오는 북한강의 첫 줄기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루 5000t의 물이 땅에서 토해져 나옵니다.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면서 이 골짜, 저 골짜에서 내려오는 지류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모여진 줄기가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산을 돌아가고, 독을 넘어가면서 거대한 한 강을 이루어갑니다.

몇 년간 북한학교, 노동학교를 하면서 ‘네 번째 강’을 실제로 흘러 보내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강줄기를 따라 걷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마음에 담겨 “네 번째 강을 흐르게 하라!”는 명령문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첫 출발을 지리산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저 아이들이라면 함께 흘러 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사신 것일까요?

겨울이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교제해 왔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연해주에 머물 수 있는 집

이 준비 되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일 또한 큰 강의 한 지류라 여겼던 터라 언제고 연해주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 또한 긴 시간 간직하고 있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원 공동체를 함께 시작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연길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얼마 전 급하게 중국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도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두산 여행을 목적으로 시작된 여행이 ‘조중접경지역 탐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와서야 많은 분들이 ‘조중접경지역 비전트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께서 고아원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반가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014년 한 해에 네번째강을 상징하는 백두대간을 시작과 끝점을 몸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여행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 있는데,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 형제님 한 분이 조선족입니다. 흑룡강성 출신으로 연길과 단둥에서 살며 일하셨는데 여행단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여행이라 내심 불안했던 마음을 정리해주는 확실한 안내자였습니다.

8월 3일

초등학교 2명, 중·고등학생 7명, 선생님 2명, 공동체 가족 2명 이렇게 14명이 여권과 배표를 들고 무거운 짐 가방과 먹거리 짐들을 들고 동해항에서 열흘간의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받고 있는 형제님은 중국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비행기로 떠났고, 우리는 동해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배편에 올랐습니다.

〈동해 - 블라디보스톡 - 하산 - 연길 - 백두산 - 단둥 - 연길 - 하산 - 블라디보스톡 - 동해〉

우리들의 여행일정입니다.

잠깐 말씀 드렸듯이 백두대간 끝 점인 백두산이 목표였던 처음 계획은 많이 수정되어 중국에서 긴 길을 돌아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길을 러시아 중국 두 개의 나라를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백두대간의 지도상 길이는 1,577km이고, 실제 거리는 2,103km입니다. 네번째강 끝점을 보기 위해 우리가 여행한 길이는 뱃길로 20,018km요, 차량 거리가 7,500km였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중국과 ‘북한접경지역’ 도로는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이 국경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차를 타고 가면서 모퉁이를 돌면, 고개만 넘으면 보통이를 지고 지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서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탈북자’라고 하는 그 분들이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즉시 돌아오는 말이 “어떻게 하긴요! 태워야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래도 태워야죠!”

네 번째 강을 흘러 보내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 그렇기 때문에 – 는 수없이 많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그 분은 ‘사랑’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였습니다. 다른 어떤 예외조항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요한복음13장 34절 –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질문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누가복음10장)

백두산 정상 ‘천지호’는 ‘천수담’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며 어디에서도 물이 공급되진 않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담’이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천지의 물은 고갈될 것입니다. 밀고 밀리는 사람들속에 섞여 ‘천수담’을 보면서 마음의 기도를 담아 보았습니다.

‘네번째강’이 흘러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된다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반도를 대륙을 적시게 만든다면!

이 기도문을 안고 삼수점에서 예수원까지 걸었습니다.

마음의 기도문과 달리 몸에 남는 것은 육신의 고달픔이었습니다. 다리근육과 어깨의 육신거림과 무거운 발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조건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런지요.

강은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은 강은 강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에는 온갖 지류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에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내 것을 포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간직하고 지켜야 할 내 것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없으면 다른 지류와 만남이 없습니다. 만남이 있어야만 더 큰 강을 이루어 독을 넘을 수 있고, 산을 돌아갈 힘 생깁니다.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천수담’까지는 수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넘어 ‘네 번째 강’을 연결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만나고, 자고 있는 수많은 지류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달픔만 남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우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문화 기고

훌륭한 경찰관 아버지-은영선

특별기고/태백산천제참여기-육군8087부대2대대 이명진 원사

훌륭한 경찰관 아버지

은 영 선

저에게는 고조(高祖), 아버지에게는 증조(曾祖)가 되는 殷字 貞字 杓字께서는 이제묘(夷齊廟, 海州 淸聖廟)가 지명한 관리자칭호 ‘天文博士’ 를 얻었고 환인환웅조선을 이어가는 적통자가 되었다.

저의 증조부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본다.

“나의 아버지는 잉태에서부터 이제묘 관리자로 키워졌다. 아버지는 8세 때 백일장(白日場)에 나가 시관(試官)으로부터 ‘최치원을 능가하는 천천제’ 찬사를 받았다. 시관은 아버지의 천제성을 확인하려고 시제답안을 5장이나 작성하게 했다. 아버지는 백일장 기록을 가지고 이제묘를 방문했다. 그때 天文博士 칭호를 받고 환인환웅조선(狆濊, 하늘조선) 적통자로 인정받았다. 태백에서 그 과정에 관한 제(天濟)를 지내며 아버지는 銀河를 향해 ∞조선8도를 천명하였다. 그런 후에 가 지도(可支島)로 가서 동해용황(龍凰)에게 ∞조선8도天壤(천양, 세상)을 보고하였다. 그 과정은 서원 사우(祠宇)의 학자들이 함께하였고 자금은 철종대왕을 모셨던 내관(內官)이 지원했다. 아버지가 작성한 시제답안에는 ‘태백은 은하(銀河) 중심이고 울릉은 태양계 중심이며 可支島는 지구 중심이다.’ 라고 시작되는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가 있다.”

저의 조부가 설명한 시제답안 내용을 짧게 적어본다.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는 삼국(三國)으로 이졌지만 미륵사상에 젖은 고려왕실에서는 금기사
항이었다. 국사(國師)에 오른 일연(一然)도 고행(軍衛)으로 내려와서야 삼국유사에 환인환웅조선
을 언급했다. 이승휴가 파직된 이유는 ‘은하중심 태백 태양계중심 율릉’ 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승휴는 고행(삼척)에 내려와서도 帝王韻紀(제왕운기)에 환인환웅조선을 ‘地理記(지리기)’ 로 표
현해야했다. 역사서에 관기를 차지하는 다툼으로 묘사된 李安社(이성계 고조, 穆祖)도 실상은 환
인환웅조선을 부정하는 세력에 밀려서 원나라로 도피한 것이다. 고려왕실은 과학기술을 가진 환
인환웅조선을 두려워했다.

세종대왕은 선대의 유지에 따라 태백과 율릉에 백성의 출입을 금(禁)하여 태백은 銀河系窓門
(은하영역)으로 만들고, 율릉은 銀河水를 만든 새에게 돌려주었다. 세종대왕은 1439년 성주에
설치된 외사고에 6년 동안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를 기록하여 태조·정종·태종 실록과 함께
엄동설한 12월에 봉인하였다. 태백에서 제(天濟)를 지내고 봉인에 참여하려던 세종대왕은 중국
대륙을 사대하는 세력에 밀려 의지를 접어야했다. 성주 외사고에 모아진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
는 1423년(세종 5)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황희가 수집한 자료가 도움이 되었다. 외사고에서
는 태백산에 환인환웅조선 기록을 안치하려고 1부를 더 만들었는데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에
있는 성황사로 넘어갔다. 외사고에서 외진 장소를 우선시한 것도 있지만 성황사가 황의와의 약
조를 거론하는 연통을 보내왔다.

황희는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 시절 고려왕실과 관계되는 능을 돌아보았는데 고려개국공신을
모신 성황사도 있었다. 성황사에서 ‘卜砂瑰三能山弘述 유훈, 옥구술을 살펴보니 3개가 산(합)이
되었으니 弘益人間을 記述하면 보내 달라’ 하였고, 황희는 약조를 하였다. 외사고에서 환인환웅
조선 건국역사기록을 넘겨받은 성황사는 태백산성사우 명칭을 사용하였다. 최치원생사당에서는
성황사(태백산성사우)로 찾아가 외사고에서 넘겨받은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기록을 필사하였다.
1538년(중종 33) 성주사고에서 화재가 나기 전에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기록은 대피시켰다.
왕조실록은 옮길 때 한양에서 허락이 내려져야하지만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기록은 봉인과정
에서 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기록은 문회서원으로 옮겨졌다가 이제묘로

안치되었다. 조선시대에 이제묘는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기록을 접하는 중심이었다.”

저의 증조부가 전해준 사연을 적어본다.

“최치원생사당, 무성서원, 소수서원이 정세(情勢, 政勢)의 어려움을 이제묘에 건의하였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서원에서 인재를 추천해서 이제묘로 보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조부도 선택되었다. 이제묘는 다른 서원과 사우에 비해 규칙이 많고, 소장된 학문이 조선시대 과거시험과는 동떨어졌다. 모두들 각자의 생활을 찾아 하산했다. 나의 조부 殷字 成字 煥字께서는 관리자 양성과정을 이수했지만 이제묘가 정해주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향행을 선택했다. 조부는 그 선택을 아쉬워하며 아들이 생기면 이제묘로 보내겠다고 약조를 했다. 이제묘는 나의 아버지에게 ‘이두로 기록되어진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를 한문으로 풀어서 기록해두라’ 명령했다. 이제묘가 환인환웅조선 역사를 넘길 정도로 당시의 당황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서원 사우 도움으로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를 필사하여 알렸고 나도 그 뜻을 따랐다. 노덕서원 도움으로 함경도출신 金貞淑, 무성서원 추천으로 정읍 全龍圭(전봉준 아들), 분양서원 백산서원 추천으로 한음구씨의 사위 張榮祚, 선대와의 인연으로 충청도 朴憲永 반명한 등이 있다. 全龍圭 朴憲永은 일본 경찰 감시가 심하다고 되돌려주었고, 金貞淑 반명한은 그 기록에 대한 성사를 약속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경찰이 정읍 全龍圭와 그의 아들에 관한 독살을 읊조리며 ‘은하는 태양계에 속해있고 그 중심은 후지산이다’ 라고 나를 압박했다. 일본고등경찰이 사마담 사적 필사본을 빼앗아가고(군위신문 權在足下 참조) 남동생을 일본으로 끌고 가는데도 나는 아버지 유언을 지켰다. 말손자를 일본으로 데려 가려는 일본고등경찰 강압에는 ‘태양계 후지산’을 적어서 받쳐야 했다. 나는 말손자를 동이(東夷)로 키우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할 때부터 연필을 지워주며 한문을 가르쳤다. 아버지가 정리해 놓은 환인조선 역사를 말손자는 취학(就學)전부터 한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소원을 현실화 시키는 천제였다. 나는 말손자가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를 증명하리라 확신했다.”

1970년대에 증조부가 자랑한 말손자는 저의 아버지다.

저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우주선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인교장 아들에게 조선어(朝鮮語)를 가르쳐주었다. 그 사건으로 저의 조부는 일본고등경찰에게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다. 일본고등경찰은 환인환웅조선 건국역사 해독을 요구했다. 조부는 일본고등경찰이 요구하는 기록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넘겨주었다. 그 번역은 일본왕실을 거쳐 동경대학으로 전해졌다. 일본고등경찰은 아버지에게 초등학교등교불가 처분을 내리고 졸업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선어사건을 매듭지었다. 당시에는 졸업장이 없으면 중학교 진학이 어려웠다.

군위초등학교에서 경성사범학교로 발령이 난 교사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해방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그 교사는 아버지의 천재성을 인정하여 경성사범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기강습과(임시초등교원양성소)에 장학생으로 추천해주었다.

저의 조부가 당시의 사정을 설명했다.

“한학자들 의견에 따라 만아들을 강원도 충청도로 진학시키려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내가 만아들을 대구로 보내려하자 학자들이 여출일구(如出一口)로 반대했다. 성년(成年)이 되어서 강원도에 정착하려면 지금 경성으로 보내야 한다며 한학자들이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아버지는 말손자가 하늘보다 귀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한학자 의견을 따랐다. 나는 학문이 인생이었는데 만아들이 태어나고부터는 그 아이가 우주가 되었다. 만아들을 경성으로 보내는 결심을 하니 물도 못 넘기고 몸져누웠다. 만아들이 울면서 경성행을 포기하자 물이 넘어갔다. 그때 만아들을 경성으로 보내지 못한 것이 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저의 아버지는 대구공업고등학교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작성해놓았던 우주과학기지 보고서를 이승만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보냈다. 특별한 답신을 못 받던 아버지에게 경성공립농업학교가 모집하는 서류전형 합격은 힘이 되었다. 그 당시 경상도에 가뭄이 심해서 전답을 팔아야 경성행이 가능했기에 아버지는 갑종장교시험에 응시하였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아버지는 청주육군병원 경리장교로 발령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연구에 대한 배려가 주어졌기에 ‘포병으로 경력을 쌓은 후에 우주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는 건의서를 박정희대령에게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조부 부모 형제를 위해 월급을 꼬박꼬박 송금했고 그것은 성실함으로 주변에 알려졌다

다. 장학금 쾌적으로 충청도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실린 금광대표가 아버지를 사위로 점찍었다. 충청도에서 금광을 운영하는 대표는 무주(茂朱) 만석지기 집안의 맏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규수(閨秀)에게서 혼처가 들어와도 관심이 없었다. 금광대표는 아버지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청주여고를 졸업하여 교편(敎鞭)을 잡고 있는 딸도 소개시켜주었다. 딸은 '형제들이 금덩이에 욕심을 부리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광을 폭파시키고 싶다' 했다. 아버지도 금광폐쇄가 소신이었기에 금광대표 딸에게 관심을 가졌다.

아버지가 보낸 건의서가 받아들여졌다. 연구실은 대전육군병원으로 정해졌는데 기밀(機密) 때문이었다. 그때의 감격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학창시절부터 보낸 건의서에 관심을 가져준 곳은 있었지만 긍정적 평가는 없었다. 박정희장군(김유신장군처럼 지휘관 의미로 장군호칭사용)께서는 내가 보낸 건의서를 세심하게 검토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먼저 우주개발연구소가 만들어졌다.”

건의서가 받아들여진 과정에는 아버지의 초등학교시절 활동사항, 단기강습과 장학생추천, 경성공립농업학교 서류전형합격이 경력으로 인정되었다.

아버지는 금광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장인(丈人)이 금광을 접고부터 갑작스런 대소사가 밀어닥치더니 아버지도 양평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연구기지 구축은 무산되고 아버지도 전역을 했다.

저의 큰외삼촌이 여러 한학자에게 아버지 진로를 자문하였다. 아버지는 강원도로 가면 국운이 바뀔 정도로 대길하고, 서울 충청도에서는 성공, 경기도 군위는 보통, 대구는 불행이니 거처를 두지 말라고 판정받았다. 한학자들은 엄마와 저에게도 같은 판정을 내렸고, 오빠는 충청도는 길하고 대구는 아버지와 같았다. 큰외삼촌이 아버지에게 경제권을 넘겨줄 테니 집안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 작은외삼촌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아버지는 대구행을 결심했다. 큰외삼촌은 한학자에게 저의 작은아버지에 관해서도 질문하여 대구거처가 불행이라고 판정했다. 작은외삼촌이 반대의사를 접었지만 아버지는 처가(妻家)재산을 맡는 것이 불편하여 대구행을 강행했다.

저의 작은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조상의 전답이 날아갈 지경이 되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갚아주었다. 맨주먹으로 서울로 올라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는 군위에서 교사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오빠는 큰고모에게 저는 증조부 댁에 맡겨졌다. 엄마는 충격으로 대구 방향으로 눈길도 두려워한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말씀한 그 당시의 사정(事情)을 적어본다.

“한학자들은 관상감(觀象監) 내관 율관(律官) 집안에서 학풍을 이어가는 석학(碩學)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강원도에 정착하면 대길하고 도성(都城)도 편안하여 좋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큰처남과 함께 충청도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책이다. 충청도 반이 지구수장 되면 그때 우주선을 논하면 된다.’ 했다. 청주사범을 졸업한 張寅英 큰처남이 반성씨라고 말하자 한학자가 헛기침을 하며 막더라. 나는 반성씨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반기문 유엔총장 뉴스를 보고서 지구수장 뜻을 알게 되었고 한학자들의 학풍에 경이를 느꼈다. 나는 서울에서 시장(市場) 노인들 고충을 들어주며 지냈는데 그것이 도성을 불편하게 한 것인가? 나와 연결되는 사람이 간첩 일제앞잡이 각국의 스파이(spy)인데 내가 모르는 걸까하는 불안감에 잠을 설치는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경찰관모집에 어렵사리 서류를 제출했다. 남산의자에서 잠을 자는 아버지 모습이 뼈만 앙상하여 노숙자보다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치루며 현기증으로 정신을 잃으면서도 아버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서울에 발령을 받았다. 아버지는 폐지수집상에게도 존대어를 썼고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느라 발이 통통 부어도 경찰관을 자랑스러워했다. 시장상인들이 아버지에게 잡다한 심부름을 부탁하더니 상인모임 회계장부를 맡겨버렸다. 아버지가 강력계로 보내달라며 불평을 했다.

때마침 다른 지역 보석상사장이 순찰을 해달라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파출소장에게 부탁해왔다. 그 보석상은 빈번한 절도, 이어지는 사고, 불미스런 소문이 오비이락(鳥飛梨落)처럼 겹쳐져서 기피대상이었다. 보석상사장은 ‘신상(身上)이 거론된 경찰관에게 순찰을 받아보라’ 는 조언을 여러 번 들었다며 아버지를 콕 짚었다. 동료경찰관의 만류에도 순찰에 응하는 아버지에게 파출소장이 경찰차를 제공했다. 아버지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찰차기름을 아끼고 노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걸어서 갔다. 동료경찰관이 ‘경상도 돌아이 경찰관 무사히 돌아와라’ 외

쳤다.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준 별칭 ‘경돌경(경상도 돌아이 경찰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보석상사장은 순찰 첫날부터 아버지를 가게에 한 시간씩 머무르게 하더니 며칠이 지나자 수정원석 선물을 제안했다. 아버지는 ‘지역민이 주는 거라면 받겠지만 타 지역이라 받을 수 없다’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지역의 시장상인들이 아버지에게 다른 지역 순찰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마련해주는 거처를 받으라고 강요했다. 이유는 보석상사장이 아버지를 그 지역으로 전출시키려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지역의 동료가 마련해주는 방1칸을 받고, 타 지역 보석상가에는 일주일에 2일 순찰로 지역상인들과 타협을 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신상(身上) 사연은 이러했다.

아버지가 발령받은 지역에도 역사를 이어온 고유한 제(祭)가 있었다. 제(祭)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며 미신으로 치부되어 고유문화를 보존하는 이들에 의해서 조용히 거행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발령을 오기 전에 두 곳의 제(청량리 산신제, 동방청룡단(東方靑龍壇, 용제 청룡제 기우제))에서 아버지, 엄마, 제가 거론되었다. 엄마와 저는 성별, 띠, 이름이 나왔기에 우연으로 여겼지만 아버지는 신상(身上)이 거론되었다. 신상은 ‘환인조선 고래상어천제제사, 단오생, 김유신 공덕 군이출생군이출신, 銀鐘비 銀鍾비우물’이었다.

시장상인들이 신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던 중에 아버지가 경찰제복을 입고 나타났다. 상인들은 ‘銀鐘비 銀鍾비우물’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버지에게 신상을 캐물으며 확인했다. 아버지는 ‘端午生, 김유신 사당이 있는 군위출생 군인출신, 이름 殷鍾雨’였다. 고래와 상어고기를 제수(祭需)로 올리며 환인환웅조선 적통자로 알려진 아버지의 증조부 조부 사연도 한몫했다.

방1칸 덕분에 저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온 첫날 아버지는 저에게 ‘수정원석을 가져와도 되냐’ 물었다. 엄마가 화를 내며 싫어했다. 저의 가족에게 쌀이며 반찬을 주는 분들이 많았다. 엄마는 집안에서만 지내며 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그동안의 고생 때문에 엄마는 아버지 월급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가 터트리는 두려움은 저에게 쏟아졌다. 상인들이 저를 장충단공원 淸溪川 水標(청계천 수표, 1985년 보물 제838호 지정)로 피신시켜주

었다. 水標에 모인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자 상인들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돈을 주었는데 아버지 월급보다 많았다. 淸溪川 水標에 모인 분들은 미신으로 몰린 전통이 문화로 인정받기를 기원했다. 그들은 저를 ‘문화제에 깃든 혼을 알릴 인물’이라며 학비를 주었다.

저는 돈을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는 울면서 돈을 던지며 상인들에게 ‘내 딸을 그런 곳에 데려가지 말라’ 화를 냈다. 서울생활을 두려워하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마음고생이 심했다.

상인부부가 저를 대학까지 보장해주며 양녀로 삼으려했다. 제가 그 집으로 가려하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생활고 불안을 누그러트렸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상인은 책이며 그림도구를 사주며 저에 대한 배려를 지켰다.

아버지는 경찰관이 되고서도 지속적으로 금광산 폐해를 건의했고 표창장을 받았다. 시장상인들이 화객(華客)에게 연락하여 아버지를 추천해주었다. 아버지 군인경력을 기억하는 곳에서 연락을 해왔다. 박정희장군 직속연구원이 걸인들 일자리를 걱정하는 게 안쓰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은혜(恩惠)로 여기며 감격스러워했지만 편안한 보직은 사양했다. 인연으로 보직이 결정된다면 모두들 권력을 쫓게 되고 통치자에게 누가 된다는 것이 아버지 소신이었다.

타지에서 혼자지낸 세월이 길었던 아버지에게 진급보다는 가족이 우선인 이유도 있었다. 딸이 경찰제복을 입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위안이었다. 엄마는 청주여고 동창생 남편 중에 국장이나 차관이 있다며 아버지 결정에 불만이 많았다.

통치자 외부경호에 아버지가 뽑혔다. 외각 지역 말단계급을 경호 인력으로 투입할 필요 없기에 아버지는 주변의 오해가 우려스러워 주저했다. 파출소장이 동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투입을 결정했다. 아버지는 경찰이 될 때 강력범죄소탕부서 또는 사병묘역잡초관리인으로 보직을 적었기에 국립묘지 투입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국립묘지에서 기다리다가 입장(入場)을 하면 경호시작 전까지 사병묘역에서 충성구호 거수경례를 붙이고서 잡초를 뽑았다.

어느 날 통치자가 사병묘역을 돌아보다가 충성구호 거수경례를 붙이고서 맨손으로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더니 ‘손이 따뜻하네 용서를 구하네’를 속삭이며 어깨를 두드렸다. 통치자 손이 너무도 차가워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다. 다른 경호 인력과 거리가

있어서 속삭임은 아버지만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용서의 의미를 궁금해 했다.

1976년에 증조부와 조부가 저에게 토로한 내용 중에 답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사연을 상세히 적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의 고조부가 돌아가시고 증조부가 환인환웅조선 적통자를 물려받았다. 증조부에게는 환인환웅조선을 믿는 이들의 서신이 전달되었다. 서신 중에는 대구사범출신 일본군헌병 신상묵, 대구사범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 박정희가 있었다. 신상묵은 처음부터 환인환웅조선을 위해 사지(死地)로 뛰어들었고 박정희는 중간에 선택이 되어졌다.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로 서신을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 일본어 이름과 조선이름 박정희를 적어서 보냈다. 이유는 환인환웅조선 백성으로 맹세를 적었기 때문이다. 신상을 밝히지 않기로 약조해놓고 그걸 어겼으니 증조부는 걱정을 많이 했다. 증조부 걱정대로 박정희는 피가 마르는 수모를 겪었다. 해방이 되고 증조부는 '일본으로 끌려간 남동생 때문에 서신공개를 후일로 미루겠다.' 약속했다. 1965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환인환웅조선 적통자와 연락했던 서신을 찾고 싶다' 토로했다. 측근들이 몇 년 간격으로 증조부를 찾아냈고 서신을 내놓으라고 다투었다. 증조부는 말술을 마시며 치매노인으로 지냈지만 다투는 멈추지 않았다. 저의 조부가 당시의 서신을 필사해서 진짜라고 보냈다. 측근들은 종이재질을 검사하여 가짜를 밝혀냈고 적통자는 사기꾼이 되었다. 증조부와 조부는 사기꾼 오명을 후련해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당시의 필체와 내용을 확인해주며 적통자를 인정해주었다. 그 일로 저의 조부에게는 기밀연락망이 붙여졌다. 권력에는 지키는 자와 무너트리려는 자의 대결이 존재하기에 조부는 기밀연락망을 거부했다. 그러나 진심을 토로하는 통치자 서신에 기밀연락망을 받아들이고 서울에서 경찰에 입문한 만아들을 거론해야했다. 만아들은 과거의 인연으로 좋은 보직을 제공받았는데도 사양했다는 내용을 기밀연락망이 알아냈다. 그 사안을 전해들은 통치자가 '해방이 되었는데도 적통자는 치매노인으로 숨어있어야 하고 그의 손자에게도 도움을 수가 없다' 며 안타까워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증조부가 감격했다.

증조부와 조부는 저의 아버지에게 위의 사실을 함구했는데 경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통치자와의 사사로운 인연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보석상사장이 아버지에게 수정원석을 선물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나는 강원도에서 탄광채굴로 거금을 모았다. 건설사업을 확장하려는 현대, 건설업에 뛰어들려는 제일모직에서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채굴기술과 자본금이 탄탄했다. 당신이 순찰을 오고부터 방대한 수정맥 금맥을 발견했으니 수정광산을 맡아주소요.”

아버지는 보석상사장의 말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런데도 보석상사장은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청을 해왔다.

“고조선 금맥을 필사한 지도를 구하고부터 불미스런 일이 연이어 터졌다. 용한 이들이 금맥 지도 때문이라며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어느 스님이 ‘사장님이 발견한 금맥은 고조선(古朝鮮)이 감추어 놓은 보물창고이니 원상 복구시키고 흔적도 없애십시오. 그곳은 보는 것으로도 시력을 잃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경고했다. 무서운 그 장소를 보겠다고 투자자가 몰려들더니 금맥채굴허가권을 만들어 주었다. 투자자들이 채굴책임자가 되겠다며 언성을 높였고 사고도 이어졌다. 내가 투자자들에게 당신을 추천해서 허락을 받았으니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채굴책임자를 맡아주소요.”

보석상사장에게 아버지는 화를 내며 거절을 던졌다.

아버지가 전출을 갖고 치안담당지역에는 이병철회장 자택도 있었다. 전출 첫날부터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사복(私服) 조언이 이어졌다. 경찰제복을 사랑해서 대한민국경찰이 되었다는 아버지 주장에 모두들 박수를 치며 찬성해주었다. 아버지에게 대돌경 ‘대한민국 돌아이 경찰관’ 별칭이 붙여졌다. 아버지는 별칭을 동료들의 관심이라 여기며 무척이나 좋아했다. 진돌경 ‘진짜 돌아이 경찰관’ 별칭이 더해졌다.

보석상사장이 금광채굴을 부탁하는 전화를 아버지가 근무하는 본서(本署)로 했다. 동료들이 파안대소(破顔大笑)로 넘겨주었는데도 나쁜 소문이 만들어졌다. 보석상사장에게 금맥지도를 건네받은 아버지가 금맥위치를 꺾었고 그 정보를 현대로 넘겼다는 거였다. 아버지는 무고를 당했고 삼척경찰서장으로 발령이 났다. 승진하는 기회인데도 무고투서와 겹쳐져서 좌천으로 오인되었다. 삼척방문이 없었던 엄마는 두려움이 컸다. 그 당시에는 가족이 두려워하면 선처가 있었기에 삼척 행은 무산되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털어놓은 삼척 행에 대해 적어본다.

“너의 할아버지가 서울도 싫어하고 고향을 고집하던 분이다. 내가 삼척경찰서장으로 가면 함께 따라가서 밥을 해줄 테니 발령이 응하라고 아버지가 애원을 했다. 아버지가 태백산에는 조상님들 발길이 있다며 주말에는 나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조상님 운운하며 태백산 타령을 하니 겁이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원을 못 들어주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 3번이나 발령이 났던 삼척경찰서장에 응하지 않고 아버지와 태백산을 올라가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현대가 저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왔다. 금맥위치를 넘겼다는 소문이 사실로 떠돌더니 또 다시 무고가 들어왔다. 현대는 저의 조부가 발단이었는데 그 사연을 적어본다.

조부가 잠시 서울을 방문했다. 빵과 국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글을 써서 모아둔 손녀(은영선)를 확인한 조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조부는 손녀에게 밥을 먹이겠다고 데려가려했지만 당시에는 서울이 최고였다. 조부는 친분의 정세영 상무이사에게 처음으로 가정사(家庭事)를 꺼내며 만아들을 부탁했다. 언젠가는 정세영 상무이사와 저의 조부가 의기투합한 환인환웅조선 사연을 밝히는 때가 있기를 바란다.

엄마가 현대에 대찬성했다. 아버지는 담당지역에 극빈층 노인들과의 친분을 아쉬워하며 주저했다. 남산의자에서 노숙하던 시절을 지울 수 없었던 아버지에게 극빈층 노인들의 위로는 힘이 었다. 도심에서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저의 병약함 때문에 현대 행(行)이 무산되었다.

아버지는 소문의 진원지를 보석상사장이자 여기고 결단을 내리기 위해 찾아갔다.

“처(妻)의 조부께서는 무주(茂朱) 만석지기 張字 榮字 祚字이시고, 만아들 금광대표 張字 憲字 達字께서는 나의 장인이다. 장인께서 ‘금맥지도와 금광산을 줄 테니 군인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반도에 금광이 없어져야 된다는 소신으로 대통령께 건의서를 올렸는데 주변에서 막았다’ 답변을 드렸다. 고대(古代)건 당신이 만들었건 금맥지도를 태워버려야 한다.”

아버지 설명에 보석상사장이 한탄했다.

“고조선 금맥지도 소유주는 한응구옹인데 사위 張榮祚께서 물려받았다고 들었다. 張榮祚

어른의 금맥지도를 필사한 것을 내가 사들였다. 내가 스님에게 ‘가난하고 직위도 낮은 경찰관에게 왜 수정원석을 주어야하나’ 역정을 냈는데 이제야 그 뜻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보석상사장 손을 잡고 위로를 주었다.

“당신과 나는 조상이 물려준 땅이 있어서 가난하지 않다. 우리가 젊은 시절 밥을 굶은 건 돈을 벌어야할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보석상사장으로 거부가 되었고 나는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관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금맥에 매달리는가? 산업건설에 필요한 금은 수입으로 해결하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대한민국, 건강한 국토, 조상의 학문과 기술이다.”

보석상사장은 아버지와 함께 금맥지도를 태웠다. (태백문화 제25집 참조)

그 후에도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아버지는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풀어놓으며 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요구했다. 1986년, 저의 그림전시회가 MBC뉴스에 나오고 KBS 이계진 진행프로에 초청도 받았다. 아버지는 저에게 다시금 부탁을 했다.

“그림은 네가 원하는 만큼 성공을 거두었으니 나의 사연을 글로 써다오.”

도심의 탁한 공기에서 근근이 버티는 저에게 아버지의 방대한 기록은 막막했다. 거절을 드렸다.

아버지는 상심이 크셨는지 이런저런 병환을 겪었고 기억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가끔씩 ‘내가 이야기해준 선조의 과학 기억하고 있지’ 라고 저에게 묻곤 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초등학교시절 친구들이 변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변고를 열거하며 증인들이 사라져간다고 두려워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지난 시절을 잊으라고 으박질렀다. 아버지의 율화가 치매로 몰렸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게 ‘대한민국 돌아이 경찰관 殷鍾雨’를 외쳤다. 병마의 고통에서도 아버지는 웃음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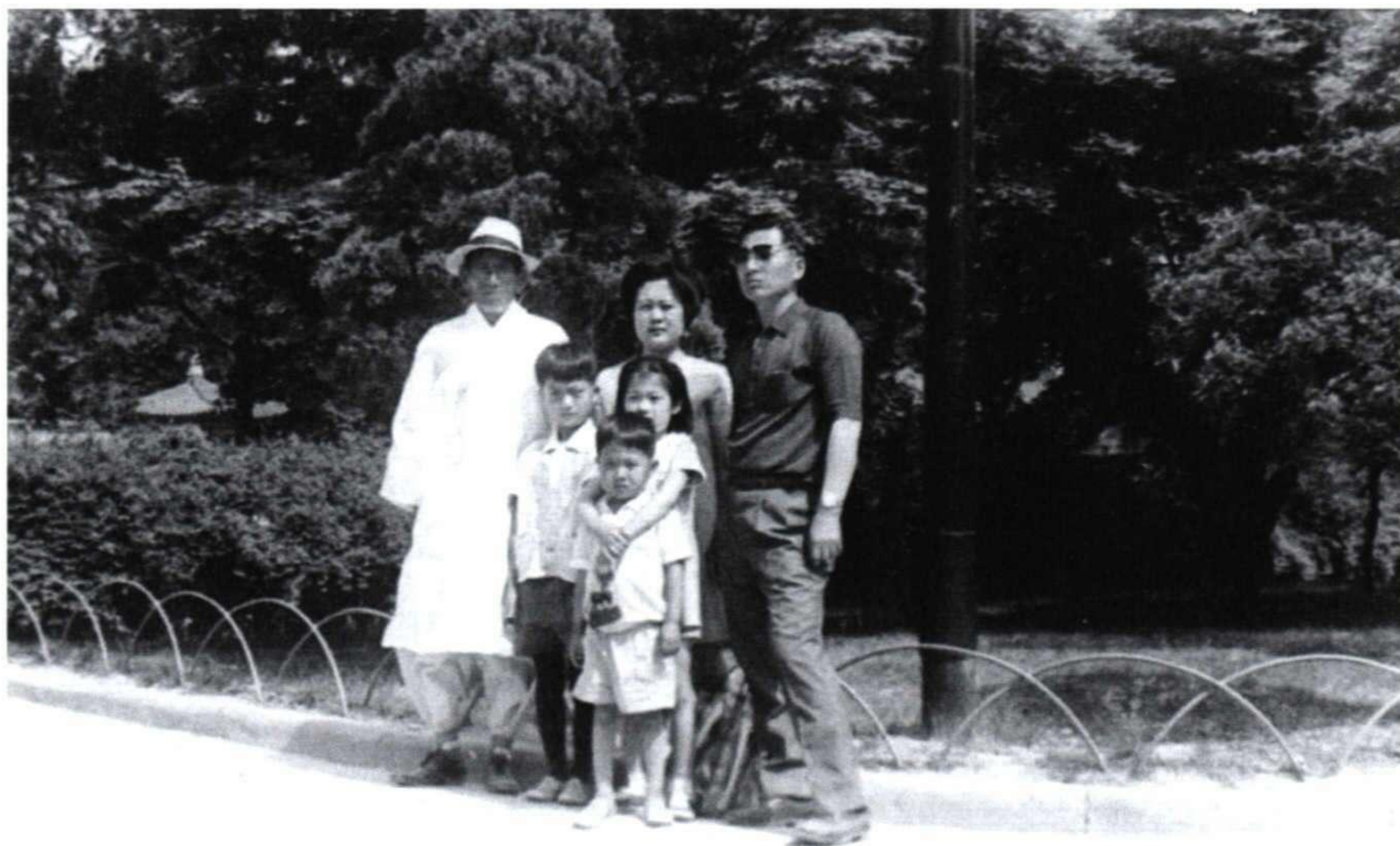
‘우주기지 구축제안을 포기한 연유’에 대한 아버지 응답을 적어본다.

“나는 우주선작업으로 참여했는데 연구는 핵이었다. 핵이 추진연료라고 해서 나는 그런 줄 알

았다. 연구에 참여하면 몸이 많이 피곤했다. 금광대표 張字 憲字 達字 어른께서 방을 마련해주었다. 내가 결혼약조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른께서는 딸에게 나의 밥을 해주라고 시켰다. 그런 대접이 불편해도 워낙 대단한 어른이시라 거절을 못했다. 나의 방을 드나들던 어른의 딸이 임신을 했다. 나는 어른의 딸과 잠을 잔 기억이 없었다. 내 연구의 화학재료 탓인지, 부담스러운 방 때문인지, 못 먹는 술이 원인인지는 모르겠다. 어른의 딸이 2번을 유산하고 3번째 임신을 했다. 나는 어른의 딸과 함께한 3번째 밤도 기억을 못했다. 어른의 장남(張寅英)이 한학자와 상담하여 태중(胎中)에 아이이름을 지어왔다. 한학자가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명성과 수명이 길어지니 태어나면 3년은 숨겨놓아라’ 하였다. 58년 12월에 나의 첫 아들이 태어났고 경각을 다투는 병치레가 있었다. 나와 어른의 딸은 한학자 조언을 들어야했고 첫 아들 출생신고를 3년 늦게 했다. 기억에 대해 나는 화학재료 탓으로 여기고, 어른의 딸은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첫아들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나의 이러한 사정을 상급자가 이해해주어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게 되었다.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었다. 딸이 태어나고서부터 마음이 안정되더라. 전역을 해도 연구기회가 주어졌지만 화학재료가 두려워서 대구로 내려갔다.

경찰이 되었을 때 시장상인들 덕분에 또다시 연결이 되었지만 두려운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경찰관에 만족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노인들 고충을 해결해주다보면 나의 어려움이 없어졌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은 순경계급이 달린 경찰제복이다. 바람이 있다면, 선조(先祖)의 과학을 증명시키려했던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내 딸이 그 기록을 완성해주면 국립현충원 무명용사 묘역에서 큰소리로 읽는 것이 소망이다. 딸이 태어났을 때 소망을 적어서 연구를 마련해준 분께 서신으로 보냈다. 그 약조를 지켜야하는데 딸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은하중심 太白(태백)이시여 도움을 주소서.



〈사진설명〉

해방이 되어도 저의 증조부와 조부는 일제침략을 걱정하며 지냈다. 조부가 기밀연락망을 받아들이는 이유에는 국운에 대해 흥흥한 소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부는 소문을 잠재울 요령으로 잠시 서울에 오셨다. 빵 사탕 국수를 달고 다니는 서울생활을 확인한 조부는 참담해하며 흥흥함을 이길 힘은 건강한 농수산물 음식이라고 했다.

조부가 태종대왕의 유해를 확인하고 싶다며 수강궁(당시 창경원) 방문을 원했다. 아버지는 경찰제복을 입으려 했는데 엄마가 결사반대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싫어했다. 고조선 보물창고를 언급하려면 시력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를 끼어야 한다며 보석상 고객이 자비로 마련하여 나누어 준 것이었다.

조부가 태백 행을 종용하자 저의 엄마와 아버지가 당혹스러워했다. 조부는 차선책으로 저를 고향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마저도 이루지 못했다. 그 당시 조부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은하영역 태백' 증명되었을까?

〈필자: 동이 은영선(author sanghee eun)〉

www.eunyoungsun.com/

학 력

서울시 단국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서울시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미술학 석사)

자격증교원자격증 (중등학교2급 정교사 미술)

직업훈련교사 면허증(노동부)

경 력

HAYATT HOTEL DESIGN DEPT. Artist

거삼 정치문화연구원 홍보실 디자인 팀장

영선 미술학원 원장

그림 전시회 2회

(서울 인사동 갤러리 '도올')

(울진군 골길 용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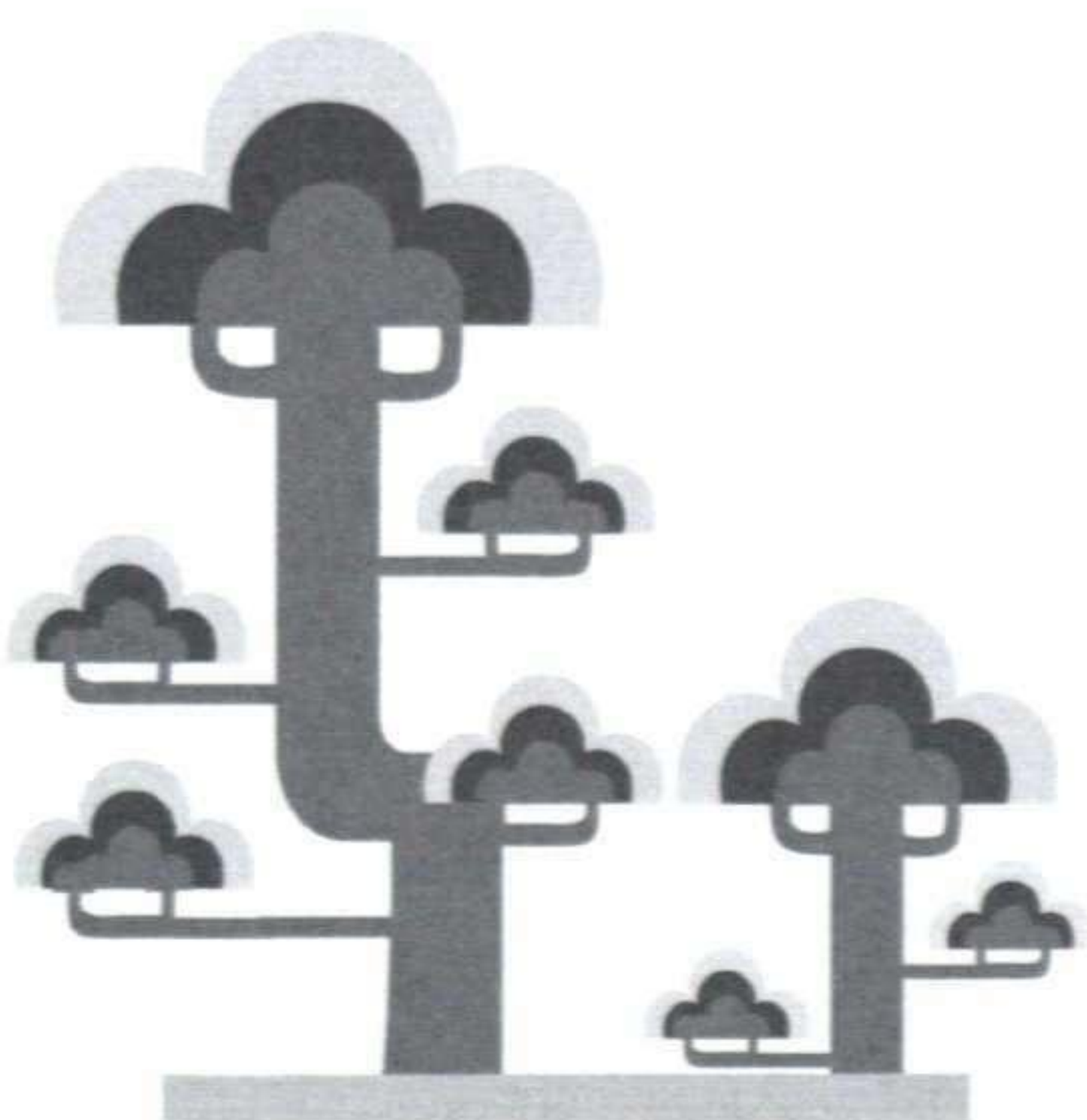
저 서

가이공주(2차 저작권 등록번호제 C-2012-020748호)

내 인생을 바꿔줄 행복여행(동아일보)

봉황의 나라(동아일보)

경기 전설과 문화(경기도정책정보잡지 에세이 연재)



특별기고/

태백산 천제행사 참여기

이 명 진

육군8087부대2대대 원사

천제(天祭)를 지낸 천제(天才)들

매년 10월 3월 개천절(開天節)이다.

세계평화(世界平和), 민족통일(民族統一), 국태민안(國泰民安),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하며,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은 태백산(太白山)으로 모인다.

태백산(太白山) 정상에서의 천제(天祭)행사를 위해서이다.

2014년 개천절 날도 어김없이 많은 인파가 태백산(太白山)으로 향하는 물결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중 몇 명이나 천제(天祭)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까?

“천제단(天祭壇)”은 아주 오래된 가치 높은 유적이었다. 천제단(天祭壇)의 만들어진 시기나 유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 서적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으며 신라에서는 태백산(太白山)을 삼산오악(三山五岳)중 하나인 북악(北岳)

이라고 하여 제사를 받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신라시대에서도 태백산(太白山)은 신령(神靈)스러운 산으로 섬겨져 이곳에서 제사가 있었으리라 추측 한다.

다른 문헌에서 살펴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천제단(天祭壇)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지만, 신앙적, 문화적 가치도 상당하다.

태백산(太白山) 정상에서 천제(天祭)를 지낸 이 관습은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수많은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천제(天祭)를 지내게 되었다.

즉, 많은 마을에서 태백산(太白山)신령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 단군(檀君)을 통해 나라의 번영을 기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일종의 토테미즘(totemism)을 통해 백성들의 노고를 달래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로서 이곳 태백산(太白山)에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제사(祭祀)를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민족의 대사(大事)를 이어왔다.

하지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당(祠堂)이 불에 소실되어 그 명맥(命脈)이 가늘게만 유지되다가, 1987년 “태백산 천제(太白山 天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91년에는 “국가중요민속자료 228호”로 지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천제(天祭)행사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단기 4347년으로 태백산 천제(太白山 天祭)행사를 예년과 같이 우리 태백대대(太白山 大隊) 장병들과 직접 참례하게 되었다.

매년 “태백문화원” 주관으로 봉행하는 행사지만 나 스스로가 직접 장병들과 함께 이 큰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는데 가슴 한켠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한 달전 망경사(望鏡寺)내 용정(龍井)약수로 천주(天酒)를 정성껏 준비했었고 오늘은 쌀쌀해지기 시작한 가을 날씨임에도 행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행사용품들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천제단(天祭壇)까지 1.7기로 라는 팻말이 야속하게도 너도나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송글송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가며 묵묵히 올라가는 우리 병사들을 보며 못내 나약하게만 보고 느껴 왔는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 나약함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고 제아무리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도, 양어깨를 짓누르는 그 어마한 고통도, 저들의 열정과 하나 되는 단결력 앞에서는 거칠게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주임원사로서 대대(大隊)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한층 두터워지는 시간이었다.

천제단(天祭壇)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은 너무도 맑고 청명하였고, 상큼하리만큼 깨끗한 산소덩어리로 뭉쳐진 가을바람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양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감을 치유해 주었으며, 한마음으로 함께한 수많은 인파는 힘이 들어 지친 우리의 육체에 다시 한번 강한 체력을

보충해주는 보충제가 되었다.

영신(令辰)맞이 곳을 시작으로 진행된 천제행사!!

행사를 주도하신 집례관,참제관,초헌관,아헌관,종헌관님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크게는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조국의통일(祖國의統一)을 염원하고 작게는 가정과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깃든 축제의 한마당~

또한 소지(掃地)종이에“조국통일”,“부대안녕”,“가정건강”을 적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등짐 짊어지고 인내를 경험하며 태백산(1567미터) 천제단에 올랐을 우리 태백대대(太白大隊) 장병들, 차가운 날씨임에도 밝은 표정 잃지 않은 칠선녀의 여고생들, 생업을 뒤로한 채 곳은 일 마다않고 기꺼이 자원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 되어 일궈낸 정말 깊이 있고 뜨거웠으며,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행사용품들 또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하산하는 걸음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하산 길에 들른 망경사(望鏡寺)의 용정(龍井)약수 한 사발은 태백산(太白山)을 찾은 온 국민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청량제(淸涼劑) 임이 틀림없었음을 자부한다.

군생활을 함으로써 태백시민이 되었고 부대(部隊)원과 하나 되어 태백산(太白山) 천제(天祭)행사의 수 백년 아니 수 천년의 맥(脈)을 이어가는 한 시점의 주인공이었다는 큰 자부심을 가슴깊이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태백산(太白山) 천제(天祭)행사와 늘 함께하는 태백대대(太白大隊)가 될 것을 다짐해 보는 시간이었다.

행사를 주관하신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강원도지사 부대표창으로 격려해주심에 태백대대(太白大隊) 전 장병과 더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백시와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초대 시

세월/가을 2편 - 김창진

구월편지/동강할미꽃 2편 - 정기영



세 월

丹野 김 창 진

한울문학등단 / 태백문화원 이사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쏟알같이 사라지는 바람속에
모든이의 아픔을 세월속에 묻어둔다.

고요히 사라져간 세월

오늘도,
영원히 숨 죽이고 있는 저 공간 속에서
나의 마음속의 속내를
왜, 열지 못하는가

저 멀리 바람에 실려간 세월안에.....


인고의 세월속에 휘어진
할머니의 허리처럼
휘어져 흐느적 거리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헤집고 다닌다.

나의 손아귀에 잡힐것만 같은
세월이란 나그네를 잡지 못한 채
거리의 부랑자 마냥
도심의 주변을 멤 돈다.

어제도 멤 돌고
오늘도 멤 돈다.

세월이 나의 가슴에
안주하는 그날까지

난,
멤 돌며 기다린다.



가을

丹野 김 창 진

한울문학등단 / 태백문화원 이사

계곡 가을 햇살은
서산 너머에 걸려 있고
바닥에 뒹구는 낙엽을
더욱 붉게 태운다.

계곡을 굽이쳐 돌고 돌아도
계곡의 강물은
오늘도 쉬임없이 흘러 내리고

계곡의 꽃들은
겨울 채비를 위해
씨앗을 통통하게 살 찌운다.

횡하니 바람처럼 왔다가
횡하니 사라져 가는
한많은 세월아

총총 걸음으로
어찌 그리 세월을 재촉 하는가



구월 편지

정 기 영

한마음실험 전무 / 한마음문학회 회원

하늘색 가슴 풀어 구름으로 쓰는 편지
행간에는 구구절절 구절초 피워 놓고
장마다 고운 사연을 흘림체로 쓰고 있다.

섬돌 밑 귀뚜라미 울음도 동봉하고
코스모스 간질이는 실바람 곁들여도
뭔가가 빠진 것 같아 살펴보는 구원 편지.

그런가 봐

누구나 그런가 봐 나만이 아닌가 봐.
가슴에 구멍 나면 한숨만 나오나 봐.
산 안개 피는 걸 보면 저 산도 그런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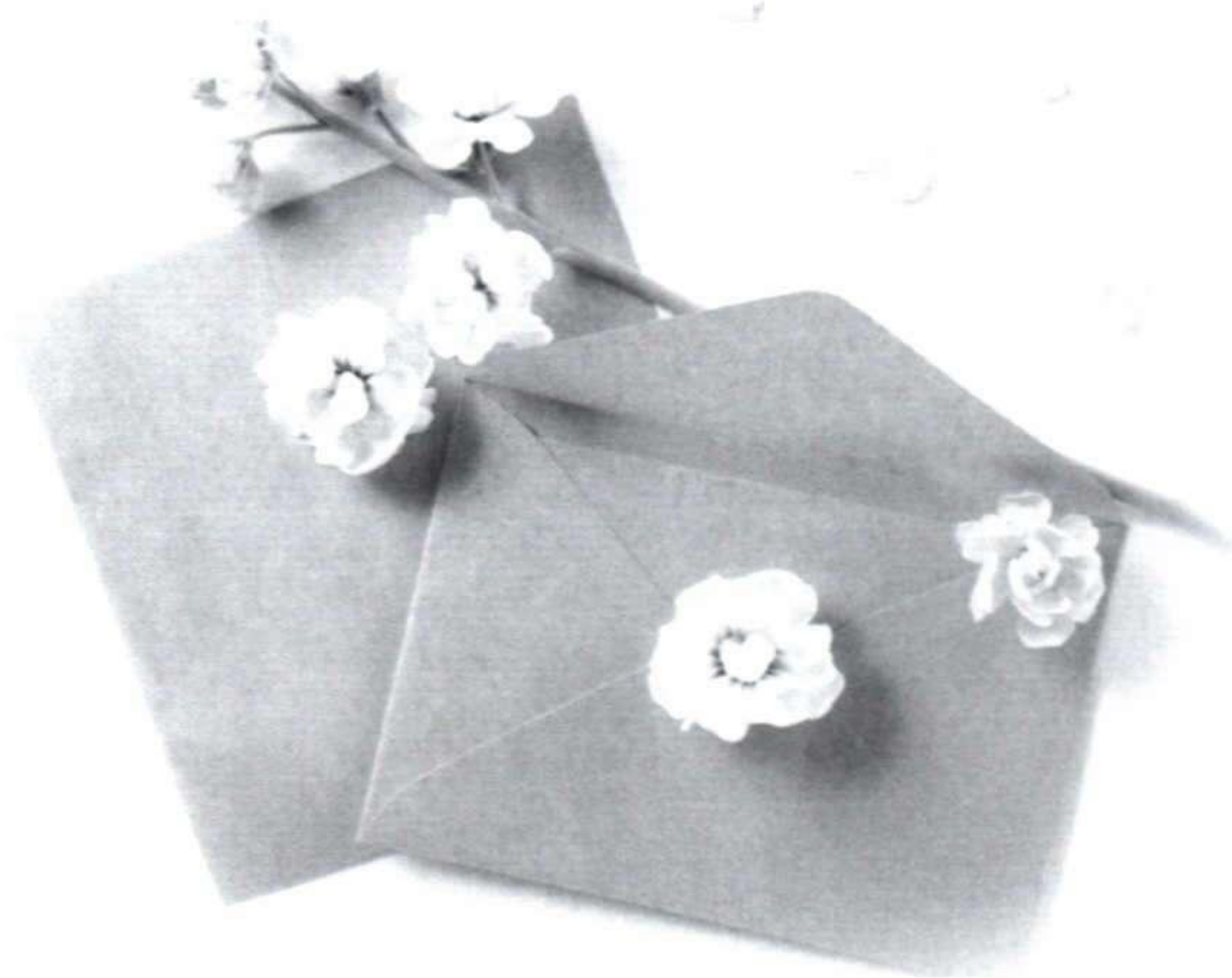
아마도 그런가 봐 어쩔 수 없는 봐.
가슴에 구멍 나면 눈물만 나오나 봐.
꽃잎이 젖는 걸 보면 저 꽃도 그런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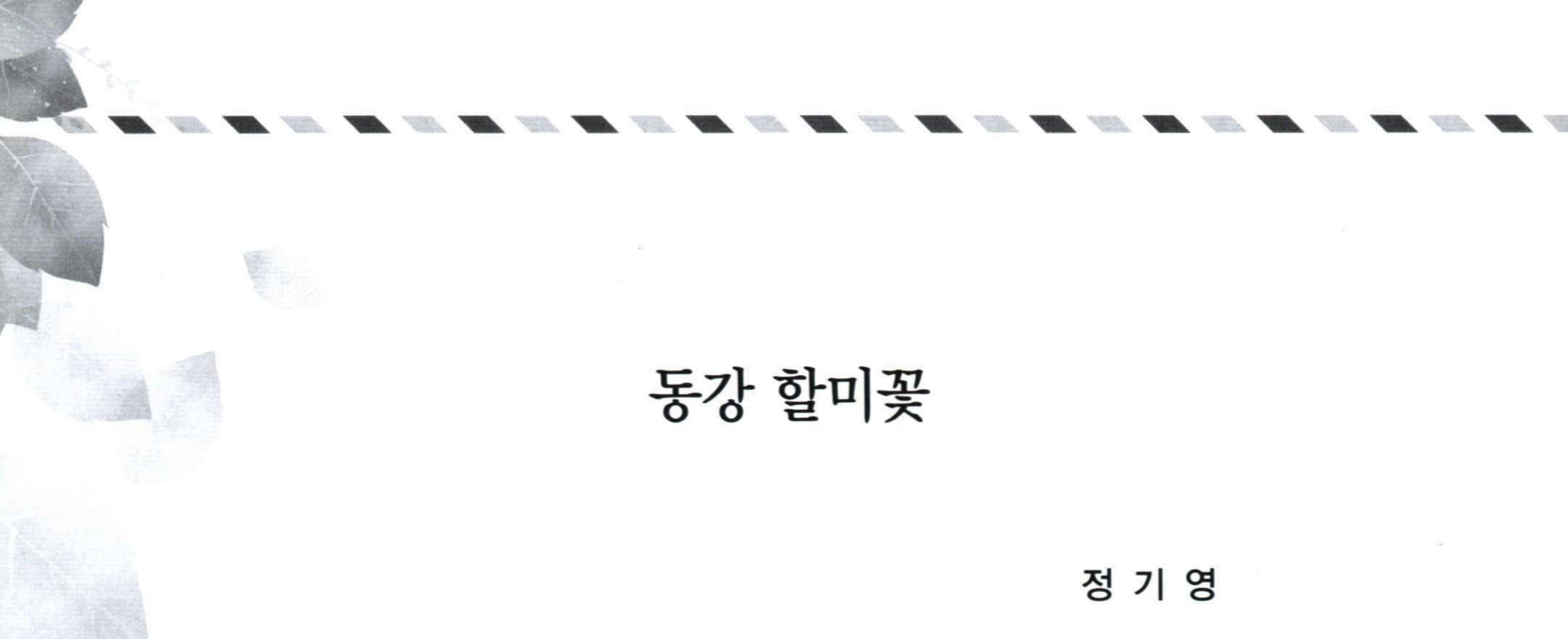
동강에서 묻다

구름이 깎아 세운 절벽을 바라보다
질곡도 세월 가면 저토록 닳아질까
무심히 강물 구비에 던져놓은 물음표.

바늘 하나 꿰지 못할 절박한 직벽인데
봄이면 동강 할미 문패 어찌 달았을까
물음표 건져 들고서 물 빼도록 살피다.

일상을 벗어놓고 번뇌도 내려둔 채
물처럼 바람처럼 살 수는 없는 걸까
덧없는 물음표 가만 내려놓고 말았네!





동강 할미꽃

정 기 영

한마음실험 전무 / 한마음문학회 회원

1.

삶은 원래 가파른 것 벼랑 끝에 서보는 것
돌 틈이면 뭐 어떠랴 정 붙이기 나름이지
때맞춰 꽃 한송이를 피워 낼 수 있다면

]2.

갈라진 바위틈에 꽃 한송이 피우려고
하늘은 그 얼마나 조바심 태웠으며
산은 또 몇 날 며칠을 밤잠 설치 댔을까?

탄광촌 민들레

정처 없이 와서 보니 척박한 땅이었다.
노랗게 피울 꿈을 버릴 순 없었기에
수십 길 지하 갱도를 홀씨처럼 날았다.

땀으로 질척대던 장화속도 견디었다
쪼개낸 폐석 더미 돌 틈도 관찮더라
어디든 앓은 자리에 꽃 한 송이 피운다면

바다

바위섬 안고 사는 바다는 늘 외롭지만
물새들이 떠나가도 붙잡지 아니하고
모래톱 가슴 쓸어도 아무 말 아니하네.

하늘만 바라보는 바다는 늘 그림지만
붉게 타는 노을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눈물만 글썽거릴 뿐 보고 싶다 아니하네.

부딪혀 출렁이는 바다는 늘 아프지만
못 견딜 욕창에도 돌아눕지 아니하고
퍼렇게 피멍 들어도 파도 탓 아니하네.



연혁

1984. 01.	황윤덕씨 등 19명이 태백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984. 08. 17	문화원 공보부 법인설립허가. 황윤덕 초대원장 취임
1984. 10. 0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1985. 07. 18	운영위원 위촉 이진호씨 등 12명
1986.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썰이" 등 12개 사업완료
1986. 0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1986. 0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 부원장제도 신설
1986. 12. 31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15개 사업완료
1987. 0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987. 12. 31	"태백문화" 지 창간호 발간 등 13개 사업완료
1988. 0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8. 08. 16	임시총회 개최
1988. 12. 31	사시랭이발굴사업 및 웅변대회 등 10개 사업완료
1989. 0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990. 03. 06	제6차 정기총회 개최 - 정관개정
1990. 06. 13	문화부지정 90년도 시범문화원 선정
1990. 10. 16	임시총회 개최 - 김영훈 부원장선출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 등 14개 사업완료
1991. 0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 등 12개 사업완료
1992. 0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1992. 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대회 등 13개 사업완료
1993. 08. 17	제3대 우성조 원장 취임
1993. 12. 31	효자비건립 등 15개 사업완료
1994. 0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1994. 12. 31	문화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완료
1995. 0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 발간 등 15개 사업완료
1996. 02. 25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 이전
1996. 12. 09	태백문화원사 준공식
1996. 12. 31	백일장 등 12개 사업완료
1997. 0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1997. 12. 31	한강대제 등 12개 사업완료
1998. 02. 24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TaeBaek Culture Center

태백시민의 문화공간 태백문화원

1998. 12. 31	숫대복원사업 등 14개 사업완료
1999. 12. 31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1999. 04. 23	임시총회 개최 - 우성조 원장 연임
1999. 12. 31	태백학술대회 등 22개 사업완료
2000. 02. 29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2000.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1. 02. 27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2001. 12. 31	전통음식솜씨대회 등 23개 사업완료
2002. 02. 26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2002. 12. 31	초금연주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3. 03. 28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2003. 04. 15	임시총회 개최 - 제6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3. 12. 31	낙동강발원제 등 22개 사업완료
2004. 02. 25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2004. 12. 13	문화원사 증축 준공
2004.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5. 03. 22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2005. 12. 31	생활문화실천강연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6. 03. 07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2006.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7. 02. 26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 제7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7. 12. 31	태백산천제 등 21개 사업완료
2008. 02. 12	임시총회 개최 - 제8대 권영한 원장 선출
2008. 02. 15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08.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09. 02. 25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010. 05. 26	임시총회 개최 - 제9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10.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11. 02. 27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2012. 05. 25	임시총회 개최 - 제10대 김해운 원장 선출
2012. 12. 31	낙동강채수제 등 15개 사업완료
2013. 02. 27	제 29차 정기총회 개최
2013. 12. 31	태백산천제등 17개 사업완료
2014. 12. 23	태백시지명지발간 및 20개사업완료

2014 태백문화원 임·직원 명단

직 위	성 명	휴대폰	주 소
고 문	황윤덕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10 13번지
	장인원	011-372-8478	태백시 삼수동 253-27번지 자혜의원
	우성조	010-9581-2714	태백시 문곡소도동 27-9번지
	김강산	010-5364-3161	태백시 황지동38-46
원 장	김해운	010-5374-5885	태백시 삼수동 4통2반 문성사
부원장	배팔수	010-2369-3288	태백시 황지동 이화연립 306호
이 사	조미영	010-4370-9867	태백시 황지동 대윤@ 2-306
	이상출	010-2712-6089	태백시 삼수동 사랑의집 가동 102호
	김병철	011-363-1098	태백시 소도동 19 한솔@2-306
	김영호	010-9917-5161	태백시 동점동 498-42 10/3
	전영숙	010-2392-7354	태백시 상장동 18/8 시영@ 101-403
	김창진	010-3352-0010	태백시 황지동 229-16 주공1차 6-508
	양진모	010-6371-5074	태백시 황지동 대림4차 107호
	남주수	010-2288-6071	태백시 황지동 64-15 서울빌딩 4층 영동보험대리점
	이무영	010-6796-5445	태백시 장성동 147-23(유정웨딩홀.모텔)
	심우섭	010-9057-7444	태백시 황지동 7-19 1층 태백교차로
	김순근	010-5192-2233	태백시 번영로 150 유진3차 1407호
	박미향	010-7262-4131	태백시 황지동 44-12
	박영숙	010-2665-7059	태백시 고원로 61 유진1차 502호
	김덕식	010-5370-4316	태백시 번영로154 유진2차@102-602
	박순기	010-5375-5124	태백시 상장동 유진2차@ 101-1101
감 사	이원섭	011-366-2539	태백시 황지동 38-161 금석당
	석재신	010-8949-5999	태백시 태백로1486

❖ 사무국 | 사무국장 - 장화운 과장 - 김수빈

❖ 문화학교강사

구분	성 명	휴대폰	주 소
노래교실	김만식	010-5366-5793	태백시 황지동 선명1차 1105호
하모니카	이광수	010-8590-4206	강릉시 교동 3주공@ 303-1104
요가	김종옥	010-3174-8166	태백시 삼수동 62-53번지 국민주택 21호
토들러동작놀이	조영미	010-4735-4220	태백시 황지동 현대@ 101-601
건강기체조	장한결	010-6688-1733	태백시 황지동 29-38
색소폰	윤여훈	010-7276-3825	태백시 시장남1길 7-10
전통가락	박용문	010-5366-4556	태백시 황연동 9통4반
유아영어피아노	신지영	010-2218-1682	태백시 황지동 3주공 305-904
양말, 가족공예	신미향	010-4737-8384	태백시 태백로 1650 유브리안 1-204



태 백 문 화 원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36

Tel. 033)553-3161 Fax. 033)553-2977

www.taebaekculture.com